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4일 수요일 제2086호 www.metrobusan.co.kr

Sports p/22

"올림픽 2연패 리허설 출발"

ENTERTAINMENT p/16

2013.12.3 대한민국에도 '비트러시'

가상화폐 '비트코인' 결제 점포 등장
환전 앱 이용하니 단 10초 만에 뚝딱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에 설치된 비트코인 환전 애플리케이션 /연합뉴스

온라인 가상 화폐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국내 첫 점포가 인천에 등장했다.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은 지난 1일부터 고객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준수 인천시청역점 대표는 이날 "국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데 쉽게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앞으로 상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결제 과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단 10초 만에 이뤄진다.

구매자가 비트코인 환전 앱을 통해 물품 가격만큼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판매자 스마트폰으로 이체하면 된다. 결제되는 비트코인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시장인 마운틴곡스 거래소에서 환화 대비 비트코인 환율로 바뀌어 표시된다.

이 대표가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은 두 아들의 영향이 컸다.

미국에서 금융학을 공부한 둘째 아들 찬우(25)씨가 가지 쪽둠으로 미국에서 시선을 끌기 시작한 비트코인을 가족에게 소개했다. 프로그램 개발자인 첫째 아들 진우(29)씨는 비트코인 결제 앱 개발을 맡았다.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첫 결제 고객도 생겼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결제 가능 점포가 수만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비트코인 액수는 133억 달러(약 14조980억원)에 달한다.

> 비트코인 : 2009년 나온 인터넷 가상 화폐로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기존 화폐와는 달리 P2P(다자간 파일공유)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뱅킹처럼 사용자의 전자지갑에 저장할 수 있으며 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다.

/김보경기자 bkim1@

"불만제로 여행 가봐서 압니다"

여행자의 욕구는 온라인 여행사 '플랜플러스' 이용규·이정일 대표

8년 사귄 여자친구와 주말마다 전국여행
실제로 다녀온 여행지만 골라 스케줄 조정
"논밭 펜션·맛없는 맛집에 당황할 일 없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하지만 이 말을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 특히 취업을 앞둔 젊은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서른 살의 두 청년을 보면 '옛말 틀린 것 없다'는 격언을 재차 실감할 수 있다. 온라인 여행사 '플랜플러스'의 이용규(사진 오른쪽)·이정일(왼쪽) 공동대표의 '고생이 사업 모델'로 바뀐 경우를 보면 말이다.

이용규 대표는 현재 여자친구와 8년간 연애를 했다. 대한민국 남자가 그렇듯이 이 대표 역시 커플이 즐기는 주말 여행을 A에서 Z까지 전담했다. 여행 코스는 물론이고 숙박·식당·교통편 등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기획했다.

"한두 번이면 모를까 8년 동안 하려니 일이 아니라 고생이더라고요. '어떤 일 누가 대신 안 해주나' 하고 푸념을 자주 늘어놓았는데 어느 순간 '이 일을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이 친구와 손을 잡았죠."

플랜플러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여행 상품을 만드는 회사다. 웹사이트(planplus.co.kr)에 장소, 일정, 숙박, 먹거리 등을 입력하면 고객 니즈에 맞게 여행 스케줄을 짜준다.

예를 들어 '2박3일 거제도 펜션 여행'이라고 입력하면 지역 버스 배차 간격, 가장 짧은 동선, 맛집 블로그에 나왔지만 실제로는 맛없는 식당, 해 떨어지면 육지로 돌아갈 수 없는 이곳의 정보, 사진상으로는 자중해풍의 럭셔리 펜션이지만 실제로는 사방이 논밭뿐인 허위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이런 다양한 정보를 묻고본 사이즈와 책으로 만들어주는 세심한 배려도 빠뜨리지 않는다. 지난 3월 오픈 이래 고객 불만 접수가 단 한 건에 그친 이유다.

"제주 여행을 갔는데 쉰 거 쉬주로 하다 보니 제주시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볼 만한 곳은 서귀포에 있어서 결국 차 기름값과 시간이 더 들었어요.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경험들을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합니다."(이정일)

플랜플러스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창조관광기업'에 꼽혀 3000만원을 지원받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관광공사는 2011년부터 매년 콘텐츠가 창조적인 여행업체를 선정해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홍보와 마케팅을 돕고 있다.

두 젊은 사장은 경제적으로 다소 힘들다. 직함은 사장이지만 대기업 평사원 때 월급을 합한 것보다 적은 돈을 벌고 있어서다. 보기는 좋지만 배가 고픈 '소규모 창업의 덫'에 빠진 것 아니냐고 시비를 걸었더니 돌아오는 답이 뜻밖이다.

"그래도 직장인보다는 낫습니다. 시키는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도전을 하고 성취감도 맛보고…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20년 지기들이 사업을 한다는 게 행복합니다. 한 사람이 돈을 들고 몰래 튀어도 어디 갈지 다 안다니까요."

/박선옥기자 zen@metroseoul.co.kr

이어도 지키는 올곧이들

3일 오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이 해상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주변국에 설명한 뒤 선포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델과 에일리

기자 수첩
양 성 은
<연예스포츠부 기자>

대한민국은 유독 스타들의 과거에 집착이 심하다.

에일리는 최근 누드사진 유출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속옷 모델 카메라 테스트용으로 누드사진을 찍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에일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SBS 'K팝스타3' 참가자 김은주는 어린 이미지와 다른 폭발적인 성량과 고음을 선보이며 이미 스타 등극을 예고했다. 그러나 방송 직후 일진설에 휩싸이며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에일리와 김은주 모두 사실 확인도 전에 온라인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글로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사실 유무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일방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글은 마치 배고픈 하이에나가 먹이를 뜯는 것과 같은 비인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너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떨까. 지난해 빌보드 뮤직어워즈에서 12개의 상을 휩쓴 영국 팝스타 아델은 음란 동영상 의혹과 청소년 시절 흡연 영상 유포로 곤욕을 치렀다.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그는 음악성을 높이 평가받아 타임, AP 등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계 스타로 선정됐다.

만일 국내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아델이 음악성을 제대로 평가받았을지 의문이 생긴다.

흠 없는 사람은 없다. 물론 잘못된 과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스타들의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아티스트의 실력과 미래를 지켜보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든다.

<김정은 고모부>

北 2인자 장성택 실각설

오른팔·왼팔격 핵심측근 2명 공개처형… 북한 권력지도 요동 칠 듯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자 김정은 체제 이후 실질적인 2인자로 불렸던 장성택(사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정원은 "최근 노동당 행정부 내 장성택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공개처형 사실이 확인됐으며 장성택도 실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하순 북한이 당 행정부 내 장성택의 핵심 측근인 이용하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을 공개처형한 이후 장성택 소관 조직과 연계 인물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을 처형한 후 북한은 반당 혐의로 공개처형한 사실을 전파하고, 김정은에 대한 절대충성을 강조하는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 결속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 1일자 노동신문에서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세상끝까지 김정은과 운명을 함께할 것"을 촉구하는 기사를 내보낸 것도 결속 다지기의 일환으로 국정원은 추정하고 있다.

장 부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당 부장의 남편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노동당 중심의 정치 시스템 구축과 경제개혁을 주도해왔다.

특히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해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김정은 체제의 주요 인물들 대부분이 장 부위원장의 사람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 부위원장의 실각이 사실이라면 북한 정치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정원은 "현재 장성택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당 행정부는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이재오 만난 문재인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내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물러서지 않는 조심'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문재인(왼쪽) 민주당 의원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특위·특검 빅딜할까

4자회담 이틀째도 결렬 "합의점 찾기 노력은 계속"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한 '4자 회담'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 후 유일호·김관영 양당 대변인은 "국정원 개혁특위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하다"며 "국정원 개혁특위와 관련해 위원장 인선 문제와 특위에 입법권 부여 문제, 국정원 개혁 방안 및 수준에 관해 상당한 견해 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와 노력은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에서 민주당은 특검 문제를 연내에 다시 논의하거나 예를 논의할 별도의 협의기구 설치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불가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추가 논의를 한다는 방침에 맞춰 김재원(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과 민병두(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들이 물밑협상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특위 및 특검 도입과 관련한 극적인 '빅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민준기자

공무원 올해 416명 감축

공무원 통합정원제 실시로 올해 보직이 없는 4급(서기관) 이하 공무원 416명이 감축됐다.

안전행정부는 3일 "부처별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중"이라며 "올해 통합정원제 시행 대상인 각 부처의 무보직 4급 이하 일반직·기능직의 1% 수준인 1042명을 감축, 이 가운데 626명을 재배치했고 나머지 416명은 줄였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 감축해 주요 국정 현안과제 등 신규 인력 수요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를 시행 중이다. /김민준기자

학교보안관 체력 측정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국민체력센터에서 학교보안관들이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 여러 체력 측정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시내 55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한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강창희 의장 방중·6일 시진핑 주석 면담

● 강창희 국회의장이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광저우를 공식 방문한다.

강 의장은 6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에 대한 대화도 나눌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국민원로회의 폐지

●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MB) 정부 출범과 더불어 설립된 국민원로회의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원로회의는 국가 중요 정책과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2009년 3월 설치됐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자문기구가 있어 국민원로회의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靑 행정관, 채군 정보 확인해줘 고맙다고 문자"

검찰은 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가족부 무단 조회 과정에 연루된 청와대 조모(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 사이에 오간 통화 내역 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경위 파악에 나섰다.

조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행정관으로부터 6월 11일 채모군의 가족부를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족부를 열람했다. 서로 2통씩 보내 총 4통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검찰에 지난달 28일 진술할 때 '누구를 만난 적은 없고 통화는 한 것 같다'고 말했으나 검찰에 문자 기록을 보여줘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13일에도 조 행정관으로부터 고맙다는 취지의 감사 문자를 받았다. 나는 나중에 밥을 한번 먹자는 답신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일부 다르게 얘기했다"며 조만간 조 국장을 재소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유다혜기자

가린다고 가려질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3일 구청을 나서자 구청 직원이 얼굴을 가려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54% "층간소음 이웃과 다툰 경험"

층간소음 문제로 국민 10명 가운데 9명꼴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절반가량이 이웃과 다툰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전국 3049명 대상으로 실시한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는 층간소음으로, 9%는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12%(367명)에 그쳤다.

◆ "층간소음 스트레스 겪어" 88%

층간소음 시 응답자의 54%는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었다. 층간소음 고통으로 이사(8%)를 가거나 병원 치료(2%)까지 받는 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 소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원인(중복응답)으로는 아이들이 뛰는 소음이 36%로 가장 많았고 TV나 세탁기 등 기계 소음과 어른이 걷는 소음이 각각 18%와 16%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악기(9%), 문 여닫는 소음(9%) 등도 주요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현정기자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보내는 신발 3일 서울 강북동 aT센터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온新교육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보낼 신발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성인 절반 "병 없지만 아프다"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은 특별한 병은 없지만 피로, 통증 등 건강상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이시우 박사팀이 지난 5~7월 전국 성인 1101명을 대상으로 피로, 통증, 수면장애, 소화불량, 우울감, 분노, 불안감 등 7가지 '미병' 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가 병이 없음에도 건강상 여러 가지 이상이 있다고 답했다.

미병은 병이 없어도 건강상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로, 질병과 건강의 중간 영역을 말한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70.7%)이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통증(30.8%), 분노(18.7%), 소화불량(18.3%), 우울감(17.3%), 수면장애(16.7%), 불안감(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증 증세의 경우 45.1%, 소화불량은 34.2%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수면장애(12%)나 피로(10.4%), 우울감(7.4%), 불안감(6.4%), 분노(2.4%) 등의 경우 실제 의료기관을 찾는 비율은 극히 낮았다.

이시우 박사는 "건강상 문제를 느끼면서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았다"며 "최근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들을 제대로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밀입국 외국선원 초병이 검거

부산 영바다에서 뗏목을 타고 밀입국하는 베트남 선원 4명을 육군이 붙잡았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3시 27분께 다대포 해안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육군 53사단 소속 초병들이 밀입국하는 T(30)씨 등 베트남 선원 5명을 붙잡아 해경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안에 머물러 있던 대만 어선에서 탈출해 부표 등을 이용해 해안으로 접근했다가 초병에 붙잡혔다. /조현정기자

공유형 모기지 늘린다

9일부터 1만5000가구 공급 … 행복주택은 20만 가구서 14만 가구로 축소

정부가 공유형 모기지를 1만5000호로 확대, 9일부터 지원하는 내용의 8·28 부동산대책 후속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13년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내에서 자체 추진 가능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이번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이 이달 9일부터 1만5000호로 확대된다. 공유형 모기지란 1%대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 또는 하락에 따른 손해를 나눠 갖는 제도로, 이미 3000호를 진행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서민 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 자금은 2014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원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 이때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또 목돈안드는전세는 시장 선호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공급은 20만 호에서 14만 호로 줄이되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를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후속 조치와는 별도로 앞으로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임대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ssa0024@metroseoul.co.kr

루돌프는 어디 두시고 3일 오후 산타 복장을 한 서대문구 홍은3동 통장 50명과 자원봉사 주민들이 관내 저소득 가구 70세대에게 전달할 이불을 들고 청계천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 청렴도 3년째 악화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청렴도가 3년 연속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3일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2013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았고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46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39위를 기록하다 2011년 43위로 순위가 내려갔다.

올해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91점을 받으며 공동 1위, 핀란드·스웨덴은 공동 3위, 노르웨이·싱가포르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송다혜기자

현대옷 입은 강서구 사덕시장

주민쉼터·화장실 등 새단장···희망마을 개소식 열려

부산의 전통 5일장인 강서구 신장로마을 사덕시장(사진)이 현대화 사업으로 재단장됐다.

부산시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강서구 대저동 신장로 사덕시장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이날 4일 오후 2시 '강서구 신장로 사덕시장 희망마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전통 5일장인 신장로마을 사덕시장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시장 시설이 낙후돼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 개발 정체, 기간 산업인 농업의 붕괴 및 전통시장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 지역 상권이 침체됐다.

이에 시는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비 2억 원, 시비 1억원, 구비 3억원을 투입했다. 시장 장옥(3동) 리모델링, 주민쉼터 조성, 화장실 등 사덕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이번 공사를 완료하게 됐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신장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사덕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이 재정비됨에 따라 지역상인들이 뭉치고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지역상권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주거환경과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서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소통,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는 복합희망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9곳에서 사업이 완료됐다.

/장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국민연금 부산본부 김치 나누기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백경수)는 지난달 29일 당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김치 3500kg은 부산 동산 경당지역 16개 복지관 등 안로회 등에 전달됐다.

근무도중 뇌질환 구제절차 어떻게

Q 사업장에서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000 이라는 뇌질환 상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 신청서를 제출했으니 요양 불승인 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리 구제절차는 어떠한지요?

A 뇌질환 상병으로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했으나 해당 뇌질환이 담당하는 업무와 상관없이 자연발생적 악화의 질환인 경우 요양 불승인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 불승인 결정 또는 보험급여부지급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기관인 공단의 지사를 경유해 심사청구(온라인심사청구시스템 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거나, 위 심사 재심사 청구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경마 불법중계하고 100억 번 세남매 검거 경마 검증 도박사이트의 배당률과 경기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100억원 상당을 챙긴 3남매 등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마와 경륜 도박사이트에 배당률과 경기결과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 경찰관이 위가 중계에 사용된 장비와 장부, 압수한 현금과 카드 등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도대교 관광상품화

스토리텔링·복고마케팅 추진··· 1박2일 체류형 상품 개발도

47년 만에 도개 기능을 복원한 부산 영도대교가 부산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된다.

부산관광공사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영도대교의 도개 장면을 보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이 대거 부산을 찾을 것으로 보고 영도대교의 스토리텔링과 복고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영도대교의 관광상품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우선 3월부터 시티투어버스 노선에 영도대교를 추가한다. 부산역을 출발해 부산대교를 지나 영도로 들어가던 기존 '태종대 순환형 노선'은 부산대교가 아닌 영도대교를 통과하도록 했다.

시티투어버스가 영도대교를 통과할 때 영도다리의 역사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영도대교 앞에 승강장을 설치, 관광객들이 영도대교를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관광해설사를 영도대교 도개 시간(낮 12시)을 전후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파견, 관광객에게 영도대교에 얽힌 역사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이와 함께 영도대교 콘텐츠 마련에도 나선다. 먼저 영도스토리텔링북을 발간하는 한편 영도다리 기념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특히 영도대교 관광의 주요 타깃 연령층인 60~80대를 대상으로 1박2일 체류형 관광 코스 개발도 추진한다.

영도대교를 중심으로 인근 자갈치시장, 크리스마스트리축제, 부평동 야시장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코스는 피란민의 애환이 담긴 영도대교 도개 관람을 시작으로 김현문화마을~40계단 및 초량 이바구길~부평야시장을 잇는 추억의 코스가 될 예정이다.

부산관광공사는 영도대교 관광상품화를 위해 이달 중순 서울 인바운드 여행사, 상품 기획자, 언론사 등을 초청해 팸투어를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발전 기여 공로 최의수 교수 국무총리상

신라대 최의수(사진)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 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전국 최초의 지역사랑운동 민·관 협의체인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의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을 맡아 지역 경제 살리기, 선진 시민의식 운동 등 향토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또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상은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 지방자치발전 유공자 포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행사 일정상 부산시장이 대신 상장을 수여했다. /장하균기자

참복의 '깔끔·쫄깃한 유혹'

롯데호텔부산 일식당 모모야마 특선 선보여

롯데호텔부산(총지배인 김정판) 일식당 모모야마에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철 참복을 다양한 스타일로 만날 수 있는 참복 특선을 진행한다.

겨울철 최고의 식재료인 참복은 성인병 예방과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는 음식 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겨울이 되면 독성이 약해지고 살찐이 오른다.

모모야마에서는 얼큰한 참복 매운탕 코스(9만원), 깔끔한 참복 지리 코스(9만원)와 다양한 참복 요리와 쫄깃한 회를 즐길 수 있는 참복 사시미 코스(19만원)를 제공한다.

참복 매운탕 코스와 지리 코스는 금일의 고비지, 전사이 3종, 사시미(참치, 한치, 아루미), 참복 매운탕 또는 지리와 튀김, 제철 과일로 구성돼 있다.

참복 사시미 코스는 복 기와무침, 전사이 3종, 참복 사시미와 아루미, 폰즈, 제철 과일로 구성돼 있다. 문의 및 예약 051)810-6360 /장하균기자

국제선물 투자전략 과정

한국금융투자협회부산지회는 오는 18일부터 부산·울산·경남지역 금융투자회사 영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선물 투자전략' 이슈 과정을 개설키로 하고 1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수강생들은 국고채 종류별 이자율과 가격민감도 분석, 상품별 수익률곡선 및 상품별 매매제도 및 특징 등을 교육받게 된다.

또 다양한 스왑을 통한 투자전략 등에 대한 심층학습도 실시된다. 국제선물 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수강 가능하다.

문의 (051) 867-9746

수영만 재개발 점·사용료 논란

시 "전문체육시설 기능 유지…현재처럼 면제돼야"
해운대구·의회 "사업자 바뀌어 허가 다시 받아야"

특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지연된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이번엔 '공유 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부산시와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 간 실시협약을 앞두고 지난 2일 시와 해운대구, 해운대구의회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공유 수면 점·사용료 감면 문제를 둘러싼 3자 협의를 벌였지만, 양측 간 의견 차이로 결론을 얻지 못했다.

시는 현재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문체육시설(요트보트 계류장) 용도'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공유 수면 9만6334㎡에 대한 점·사용료 전액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한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를 허가청인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받아놓은 상태다.

시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점·사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대구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업자가 바뀌는 만큼 점·사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점·사용료 전액 면제 조건도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해운대구의회는 오는 5일 김광모 의원의 대표 발의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유 수면 점·사용료 부과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점·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2일 3자 협의에서 해운대구는 "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긴 반면 해운대구의회는 "시가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 구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점·사용료 감면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특혜 행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민간 투자로 개발돼도 전문체육시설 기능은 유지되고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은 부산시에 기부 채납된다"며 "사업자가 30년간 운영권을 갖지만 공유 수면은 현 상태와 같이 요트보트 계류시설로 사용되고 재산권도 시에 있어 점·사용료는 현재와 같이 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유 수면이 계류 목적이 아닌 요트 임대업 등 상업적으로 이용되면 해운대구에 다시 점·사용 허가를 받고 점·사용료를 납부할 것"이라며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의회가 재개발 사업의 취지와 이 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서울 88올림픽 요트 경기를 위해 1986년 지어졌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민간제안사업(BTO) 방식을 통해 낙후된 계류시설을 개선하고 요트 전시장, 요트클럽, 숙박시설, 컨벤션, 상업시설 등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2013 창조경영 특별포럼에서 BN그룹 BIP(주) 유영호(오른쪽) 대표가 '글로벌 CEO 대상'을 수상했다.

BN그룹 BIP 유영호 대표 글로벌 CEO 대상

부산 향토기업 BN그룹의 모기업인 BIP(주) 유영호 대표이사가 지난달 30일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와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개최한 '2013년 창조경영 특별포럼'에서 '글로벌 CEO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창조경영시대 중소·중견기업의 역할과 국제경쟁우위 특별포럼'에서는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내 중견기업의 현황 및 향후 역할과 관련된 총 37개의 학술 논문이 발표돼 글로벌 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장이 됐다.

이 자리에서 BIP(주)는 선박용 내장재의 최초 국산화와 세계시장 1위 제품의 다수 보유 등 기술력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주최 측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조선기자재 국제 기업으로 활약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이 돋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영호 대표이사는 "BIP(주)는 꾸준한 연구 개발의 자세로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기술력과 최강의 역량을 앞세워 해외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류 기업으로 발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BIP(주)는 1973년 설립돼 현재 정부가 지정한 세계일류상품을 다수 보유한 국내 대표 선박 인테리어 기업으로 꼽힌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으로 모두 4종의 세계 1위 제품을 보유해 중견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다.

BN그룹은 BIP(주)를 포함해 산하에 BN스틸라(주), (주)코스모, 대선주조(주) 등 16개 계열사를 거느린 부산 향토기업이다.

/장익규기자 [illegible]

부·울 중기 경기전망 두달째 '제자리걸음'

부산과 울산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두 달째 제자리걸음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가 3일 지역기업 168개사를 대상으로 12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90.8로 앞달의 90.7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업황전망 건강도지수 90.9로 앞달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고 울산은 89.3으로 앞달의 83.3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낙동강하구 탐방제험장 '아름다운 조경' 대상

부산시는 2013년 아름다운 조경상' 공모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10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심사 결과 대상 1점, 최우수 1점, 우수 2점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건립 조경 공사 사업장(설계자 가단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윤인규)'은 악취가 풍기던 과거 분뇨해양 투기장 시설을 자연생태공간으로 조성한 곳으로 콘크리트 지하 구조물 등 기존 건물 벽면 등을 활용해 생태 복원한 사례가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금정구 구서동 '선동아 선경 아파트 사잇길 도시숲 조성 공사'는 기존 삭막했던 콘크리트 계단을 녹화한 사례로 딱딱한 환경을 쾌적한 푸른 숲으로 조성해 도시 재생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정관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조경 공사'와 '스포원 가족공원 조성 공사'가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조경상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국영웅기장 전수식

부산시와 부산보훈청은 오는 4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청 구민홀에서 6·25전쟁 참전 유공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유공자 호국영웅기장 전수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인표 6·25참전유공자회 부산시지부장 등 보훈단체별 대표 21명에게 호국영웅기장이 전수될 예정이다.

/뉴시스

손 잡은 미-일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부통령이 3일 아베 신조 총리의 환영을 받고 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일본에 이어 중국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AFP 연합뉴스

중vs미·일 군용기 '일촉즉발'

방공구역서 3차례 초근접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중국 군용기와 미국·일본 군용기 사이에 3차례 초근접 비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자유시보에 따르면 전날 대만 국방부는 입법원(국회) 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와 미·일 군용기 사이의 거리가 1해리(1.852㎞)까지 좁혀졌다"며 "레이더상으로 점이 중첩되는 정도의 가까운 거리"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23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맞불 작전'으로 자국 전투기들을 보란 듯 출격시키고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가장 빈번하게 군용기를 보낸 나라는 일본이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 군용기가 85차례, 중국 군용기가 55차례, 미국 군용기가 13차례 각각 이 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도 30여 차례 중국과 겹치는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보냈다.

당국은 미국과 일본이 향후 공중에서 무력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의 유명 소설가 위화(余華)가 최근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대외용이 아닌 국내 정치용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국유화하고 난 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중국 정부가 이를 의식,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조선미기자

'혐한시위' 日유행어 톱10

증오연설 뜻하는 '헤이트 스피치' 일본선 의미 변질…'아베노믹스' 등과 함께 선정

올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크게 악화됐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최근 일본에서 '혐한 시위'의 동의어로 간주되는 '헤이트 스피치(증오 연설)'가 올해 10대 유행어로 선정됐다.

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출판사 '자유국민사'와 주식회사 '유캔'이 공동 주관하는 2013년 유캔 신조어·유행어 대상 톱 10에 헤이트 스피치가 포함됐다.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인종을 겨냥한 혐오 발언이나 연설을 지칭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인을 겨냥한 혐오 발언이 많은 까닭에 '혐한 시위'나 '혐한 발언'과 같은 뜻으로 여겨진다.

올해 재일동포들의 밀집 거주 지역인 도쿄 신오쿠보 주변에서는 여러 차례 혐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일본 내 한국 가게는 물론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들까지 영업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됐다.

특히 올해 혐한 시위는 도쿄 등 대도시에서 지방 소도시까지 확산됐다. 지난 3~8월 일본 전역에서 최소 160건의 혐한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일본에서도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 단체 등을 중심으로 혐한 시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에서 올해 신조어·유행어 1위는 40%대의 시청률을 기록한 인기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 주인공의 대사인 '배로 되돌려준다(바이카에시)'와 도쿄올림픽 유치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온 '최선을 다한 환대(오모테나시)' 등 4개가 공동 선정됐다.

이 밖에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 '아베노믹스'와 중국발 미세먼지인 'PM 2.5', 젊은이들을 착취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블랙 기업' 등이 톱 10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조선미기자 sunmi@metroseoul.co.kr

국왕 생일 앞둔 태국 '임시휴전' 3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정부청사 건물에 진입한 반정부 시위대가 태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이날 태국 경찰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 최루탄, 물대포 등을 동원한 무력 저지를 중단하고 시위대의 정부청사 진입을 허용했다. 이는 오는 5일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생일을 앞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경찰과 시위대는 행사 끝까지 무력을 동반한 시위 저지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세 자녀 둔 장이머우 감독 벌금 400억원 내야할 듯

한 자녀 규정을 어긴 중국의 장이머우(張藝謀·사진) 감독이 400억여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장쑤성 우시시 인구계획생육국이 장 감독 부부에게 벌금 산정을 위해 수입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3일 홍콩 명보(明報) 등이 전했다.

시 규정에 따르면 한 자녀 규정 위반자는 자녀 출생 전해 연소득의 8~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인민일보 사이트인 인민망이 장쑤성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 자녀 셋을 둔 장 감독이 물어야 할 벌금은 최소 2억4000만 위안(약 417억원)이다.

한편 중국은 지난달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회의(3중전회)를 통해 한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3일>

코스피	코스닥
2008.36 (-21.42)	508.16 (-4.53)

금리	환율
3.04 (변동없음)	1061.00 (+4.90)

뉴스 & 뉴스

내년 수출 6%대 증가 전망

●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수출입 평가 및 2014년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보다 6.4% 늘어난 5980억 달러, 수입은 올해보다 9.1% 늘어난 5650억 달러로 3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예진기자

특금' 영업 모범규준 시행

● 4일부터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전신탁(특금)에 가입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편입 자산의 구조·특성·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 업무처리 모범 규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특금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사실상 펀드나 예금처럼 다뤄지면서 최근 동양 사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김현정기자

"내 카드 금리 내려줘"…고객 요구권 강화

앞으로 고객이 카드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진 사례가 많지 않아 유명무실했지만 금융 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제 시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가 지난 1일부터 삼성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고객 중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전화로 금리 인하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정우기자

은행들 '새 활로 찾기' 활발하네

신한·우리 해외시장 확대…외환 등 '대학생 홍보대사' 통해 활력충전

규제에 위축된 금융권이 새로운 활로 찾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해외 진출과 신성장 동력 발굴,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 투자 등이 금융사들의 새로운 수익원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년 수익성 강화 방안으로 해외시장 현지화 전략을 세워하고 있다. 신한은행 측은 "글로벌 현지화와 타겟시장 확대, 창조적 영업 활동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자행타된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해외 자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저위험 저수익의 대표적 여신인 발전프로젝트와 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 투자 분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면서 "신규 수익원 창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대학생 홍보대사 참여 활동 역시 활발하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생들과 함께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다.

외환은행은 최근 서울 명동에 위치한 'KEB 플라자'에서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기획한 '움직이는 월드머니뮤지엄' 행사를 개최했다. KEB 플라자에 설치된 월드머니뮤지엄은 외환은행에서 환전 가능한 세계 43개국의 통화 화폐를 전시해 보여주는 조형물이자 교육 공간이다.

하나금융그룹도 지난달 29일 '제3기 스마트 대학생 홍보대사' 50명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 홍보대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며 만원의 행복, 스마트 무비 어워 하나금융그룹 전 계열사 탐방 등에 직접 참여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대학생 홍보대사 'KB 캠퍼스 스타 8기'를 모집한다. 홍보대사는 국민은행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이 밖에 카드사와 보험사는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카드사들은 금융 당국이 최근 발표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이달부터 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채신화기자 zmb@metroseoul.co.kr

우체국 알뜰폰 벌써 2만명 돌파 눈앞 3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광화문우체국을 찾은 시민들이 알뜰폰 구매 상담을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 수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1만9600건으로 집계됐으며 늦어도 4일께 2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변종 금융사기 철통 예방책 눈길

신·변종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통신·사법 대책이 총동원된다.

금융위원회가 파싱·파밍·스미싱 등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는 메모리 해킹·스미싱 등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문자메시지 발송 정보 탈취 ▲사기 이체·결제 ▲수사 등 단계별 세부 방안으로 나뉜다. 문자 발송 정보 탈취 단계에서는 스미싱 대응 시스템과 피싱·파밍 사이트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개인·기업 사칭 문자 차단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채신화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장 규 호
사장·편집인	김 재 학
편 집 국 장	조 인 호
부산지사장 겸 직대	김 위 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31 3
부산광고문의	(051)753-2100
독 자 센 터	(02)721-9801

인도네시아 '게임 한류' 상륙

GSP캠프에 수천명 방문

게임 한류가 동남아 최대 국가 가운데 하나인 인도네시아에도 상륙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산 온라인게임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신흥 시장 현지 게이머들의 국산 온라인게임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게임 글로벌서비스 플랫폼(GSP) 글로벌캠프'가 인도네시아 세르퐁에 위치한 수마레콘몰에서 11월 28일~12월 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브라질,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인도네시아 'GSP 글로벌캠프'는 GSP의 게임 포털 사이트인 www.gamegame.com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디바인소울', '러브비트', '오션파싱', '마에스티아 온라인' 등을 활용한 미니 게임 대회와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됐으며 3000여 명의 인도네시아 현지 주민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디바인소울 우승자인 리스키 디마스 사푸트라(23·대학생)는 "디바인소울은 같은 장르의 다른 게임과 차별화되는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게임"이라며 "함께 온 친구들도 모두 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백상훈기자 [illegible]

'골프의 몸놀림' 아반떼의 숙제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아반떼의 판매가 요즘 주춤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판매는 8만610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8%포인트가 감소했다. 판매 감소율만 보면 제네시스 쿠페(-69.7%), i40(-39.6%), i30(-32.2%) 등이 훨씬 더 높지만 판매량은 아반떼가 가장 많이 줄었다. 아반떼의 판매 비중이 워낙 큰 탓이다.

아반떼의 올해 판매가 신통치 않자 현대차가 하반기에 꺼내든 카드는 '디젤 모델'이었다. 디젤 모델이 가세한 이후 9월에는 판매가 '반짝' 늘었지만 10월부터는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현대차가 아반떼 디젤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수입차를 견제하기 위함이고, 가장 큰 타깃으로 삼은 모델은 폭스바겐 골프다. 7세대로 진화한 골프는 '2013 유럽 올해의 차'에 등극한 막강한 상대다. 골프에 맞서기 위해 나온 아반떼 디젤의 경쟁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디젤차 두 모델 비교시승

토크·출력 엇비슷한 수준 차이는 변속기 구동 방식 파워 손실 아쉬운 아반떼 판매가 고작 500만원 저렴

아반떼 디젤은 1.6ℓ 엔진을 얹었고 6단 자동변속기와 조합됐다. 반면 폭스바겐 골프는 1.6ℓ, 2.0ℓ 두 가지 디젤 엔진이 있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DSG)와 조화를 이룬다.

비교 대상은 배기량이 같은 1.6 모델이다. 최고 출력만 보면 128마력의 아반떼 디젤이 105마력의 골프를 압도한다. 그러나 디젤 엔진에서 중요한 건 출력이 아니라 토크다. 최대토크는 아반떼 디젤이 28.5㎏·m, 골프가 25.5㎏·m로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달려보면 골프는 아반떼 디젤보다 몸놀림이 한결 가볍다. 이런 결과는 변속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아반떼 디젤은 무게가 무거운 전통적인 자동변속기로 구동되는 반면, 골프는 수동 기반의 듀얼 클러치 변속기로 구동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반떼 디젤은 토크 컨버터를 거치면서 파워가 손실돼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아야 한다.

이는 연비의 차이로 이어진다. 골프의 연비가 도심 17.1, 고속도로 21.7㎞/ℓ, 복합 18.9㎞/ℓ인 반면에 아반떼 디젤은 도심 14.3㎞/ℓ, 고속도로 18.5㎞/ℓ, 복합 16.2㎞/ℓ로 골프에 한참 뒤진다. 아반떼 디젤은 수동 모델조차도 역시 골프보다는 뒤진다.

가격은 골프 1.6이 2990만원이고, 아반떼 디젤은 프리미엄 모델에 풀 옵션을 구성하면 2495만원이다. 두 모델의 가격 차이는 495만원으로, 국산차와 수입차의 차이치고는 크지 않다.

/정재웅기자 ferrari[illegible]@metroseoul.co.kr

◀ 아반떼 디젤

골프 ▶

2600억 투입한 통번역 솔루션 "말 좀 하죠?"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WBS) 프로젝트 성과 전시회'에서 한 참가자가 통번역 솔루션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외국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WBS프로젝트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14개 기관, 4700여 명의 개발 인력이 참여하고 있고, 총 2600억원이 투입된 연구 개발(R&D) 사업이다. /연합뉴스

농협 '공공기관 유류카드' 출시

GS협약주유소 현장할인

NH농협카드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면 할인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출시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 전용 카드다. 전국 2400여 개의 GS협약주유소에서 이용 시 3.99%(휘발유 기준 ℓ당 약 80원)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유소를 포함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1.1%를 캐시백으로 적립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을 원하는 국가기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기업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또는 농협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유가 인하와 예산 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로 내실 있는 사업 기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농협카드가 기업카드와 체크카드 부문에서의 확고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카드 산업의 리더로 자리 잡겠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e[illegible]

010 자동전환번호, 금융사이트 등록을

미래창조과학부는 01X 한시적 번호이동 종료를 앞두고 이동통신사가 2일부터 01X→010 번호로 자동 변환을 시작함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이용자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번호변경(OTA) 이후 1년 또는 2년간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활용, 예전 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와도 새 번호로 자동 연결해 주고 있어 일부 서비스나 콘텐츠 이용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지만 본인 인증이 필요한 은행, 카드, 보험 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 등에 대비해 새 전화번호를 해당 사이트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연말정산 등을 위해 국세청에 등록된 01X 번호가 010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010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야 향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재영기자 [illegible]

'신비국수' '김피탕'… 김치의 진화

<신김치 비빔국수> <김치 탕수육>

다양한 퓨전메뉴 대거 출시

최근 김치에 포함된 발효 유산균이 아토피 완화와 면역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한 병원의 연구 결과가 보도되면서 김치의 우수성이 새삼 부각되기도 했다.

이런 여세를 몰아 김치를 접목한 다양한 메뉴들이 대거 출시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원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외국에서 붙고 있는 K-푸드의 일환으로 김치 활용에 남다른 정성을 쏟고 있다.

분식 프랜차이즈 스쿨푸드는 새콤달콤한 신김치의 맛이 매력적인 신비국수를 사계절 내내 맛볼 수 있다.

신김치 '비빔국수'의 줄임말인 '신비국수'는 신김치·열무김치와 함께 스쿨푸드의 특제 소스로 맛을 낸 메뉴로 신김치가 포인트다. 쫄깃한 면발과 매콤한 양념이 맛있게 어우러져 계절에 상관없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인의 단골 중화요리 탕수육과 김치를 응용한 메뉴도 있다.

외식 배달 프랜차이즈 '마시내'는 2002년 김치소스를 이용한 탕수육 제조 방법으로 특허받은 김치탕수육인 '김피탕'을 개발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오니기리와 이규동에서는 퓨전 요리에 잘 활용되지 않던 보쌈 김치를 활용한 일본 전통 오니기리로 한식과 일식을 한꺼번에 즐기는 재미를 맛볼 수 있다. 보쌈 김치 오니기리 외에도 전주비빔 오니기리, 보쌈 김치 오니기리 등 일본식 삼각김밥에 한국적인 재료를 넣은 한·일 퓨전 메뉴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정의일기자 prme@metroseoul.co.kr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외식업체들이 김치를 활용한 퓨전 메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스쿨푸드의 '신비국수', 오니기리와 이규동의 '보쌈김치'

스키용품 판매 두배 증가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다가왔다. 최근에는 스키와 스노보드가 대표 겨울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의류와 용품을 온라인몰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장비를 대여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했을 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몰에서 스키 관련 용품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터파크에서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최근 1주일간 스키 및 스노보드용품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전주 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은 최근 1주일 기준 전주 대비 보드장비 및 스키장비 판매가 각각 93%, 118% 급증했다. 보드의류는 43%, 스키의류는 31% 증가했다. 보드스키안전용품은 52% 증가했다. 보드스키잡화와 액세서리도 각각 12%, 30%씩 증가했다.

옥션은 같은 기간 스키·보드용품 판매량이 전주 대비 75% 이상 증가했고, 관련 장비들은 105%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AK몰에서는 같은 기간 대명 비발디파크 스키시즌권의 매출이 전주 대비 136% 상승했고, 일평균 주문 건수는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알뜰한 스키 마니아라면 현재 각 온라인몰에서 열고 있는 알뜰 기획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터파크는 스키와 보드 관련 제품을 총망라한 '13/14 스키·보드 시즌 전문관'을 운영 중이다. 버즈런 레이지비 욕스 살로몬 헬리제 등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G마켓은 오는 14일까지 '2013 보드&스키 시즌 오픈' 기획전을 열고 보드·스키용품을 최대 49% 할인된 특가에 판매하고 있다.

옥션도 내년 1월 20일까지 데상트·오클리·골드윈 등 유명 스키장비와 롤렛 등을 비롯해 의류, 잡화 등을 최대 50% 할인가에 판매하는 '스키용품 초특가 아이템 기획전'을 실시하고 있다.

/정의일기자

스노카로 눈위를 달려요 롯데마트는 4일부터 서울역점 등 전국 60여 개 점포에서 브레이크, 핸들 조작이 가능한 스노카를 4만 700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 제공

온라인쇼핑족 1회 30만~50만원 쓴다

의류·화장품 가장많이 구매

국내 소비자들이 올 한 해 동안 온라인 쇼핑을 통한 제품 구매 횟수가 증가했고 구입 금액도 많아졌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인터파크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2013년 온라인 쇼핑 이용 현황'이란 주제로 온라인 쇼핑객 8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라는 응답이 48.2%로 1위를 지지했다. 뒤를 이어 크리스마스, 설날 등 '연말연시'가 20.2%, '5월 가정의 달'이 16.1%, '의류가 시즌'이 7.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온라인 쇼핑 구매 횟수 증감'에 대한 질문에는 47.2%가 '늘었다'고 답했으며 '비슷한 수준'이 36.7%를 차지한 반면 '줄었다'는 16.1%였다. '지난해 대비 온라인 쇼핑 지출 금액 증감'에는 '늘었다'는 응답이 46.3%, '비슷한 수준' 25.7%, '줄었다'는 14.7%였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 자주 구입한 상품'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5%가 의류·화장품 등 패션 뷰티 제품을 꼽았다. 식품·가전 등 생활용품이 30.7%, 항공권·숙박권 등 여행 상품이 17.9%, 문화 공연·관람 티켓이 7.8%로 나타났다.

'1회 쇼핑 시 최대 지출 금액'은 '30만~50만원'이 33.9%로 1위에 올랐다. '10만~30만원'은 21.1%로 2위에 랭크됐다. 여행 상품이 자주 구입한 상품 3위에 오르는 등 온라인을 통한 여행 소비가 정착됨에 따라 1회 쇼핑 지출 금액의 단가도 높아진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 만족도가 높았던 상품'에는 '자유롭게 선택, 예약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이 47.5%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뮤지컬 공연'과 '패션 잡화'가 각각 28.6%를 기록했다. '연말연시 구입하고 싶은 상품'으로는 응답자의 40.8%가 '뮤지컬 콘서트 등 문화 공연'을 꼽았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절약으로 인한 편의성'이 45.4%로 1위에 올랐다. /정의일기자

광주요 반세기 역사담은 '뉴 클래식' 론칭

광주요는 내년 창립 51주년을 앞두고 반세기 역사를 담은 최고급 라인 '뉴 클래식'을 공식 론칭한다고 3일 밝혔다.

뉴 클래식 라인은 20년이 넘게 사랑받아온 클래식 라인의 시그니처 패턴과 색채·질감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로 단장한 '분청사기 시리즈'와 '유기 시리즈'로 구성됐다.

분청사기 시리즈는 지난 50년간 쌓아온 광주요만의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한 분청토를 사용했다. 그릇의 질이나 형태 문양 등에도 전통적인 제작 기법만을 고집해 특유의 고급스러운 질감과 색감을 자랑한다. 전통 유기 브랜드 '놋이'와 협업으로 탄생한 유기 시리즈 '명작'은 격조 높은 예술적 디자인에 장인의 기술력이 더해졌다.

/박지원기자 pjw@

불씨 살아난 부동산 '장작 국회' 돼 주오

집중진단 '위기의 건설업'

[글 싣는 순서]
1. 돈맥경화 - 내년이 안 보인다
2. 잘했던 해외에서 뒷따라 발목
3. 건설 구하기 국회에 달렸다
4. 집은 사는 것 아닌 사는 곳
5. 건설사 스스로 변해야 산다

양도세 감면·생애최초자 혜택 연말 일몰땐 다시 거래 암흑기
취득세 영구인하·탄력 상한제 등 시장 활성화 법안 통과 시급

건설업계의 눈과 귀가 온통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국회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마냥 미뤄지고 있어서다. 민간 주택 경기가 살아야 자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국회 바라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리모델링 수직 증축(주택법),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안은 회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회에서 다뤄지기라도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은 논의조차 안 된 상황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11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 꺾여

당연히 8·28 부동산대책 발표 후 기대감에 부풀었던 부동산 시장에는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과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효과가 반감됨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06%, 서울은 0.01% 올랐다. 하지만 전월 0.14%, 0.09% 상승률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올 들어 내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던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대책 발표의 영향으로 10월 상승 반전을 이뤄냈으나 한 달 만에 주춤거리게 됐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부 말을 믿고 부동산을 거래하느냐는 불만이 많다"며 "올해는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혜택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종료되면 내년에는 주택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복 시그널 줘 수요자 움직이게 해야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은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013년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지난 2일 '4·1대책, 8·28대책의 거시경제 영향' 보고서를 내고 "정부 대책에 힘입은 주택 투자 회복세로 인한 산업생산 유발액만 3조9000억원에 달했지만 연말 국회의 부동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이런 유발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서 경기 견인을 위한 법안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국회에서 부동산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된다고 100% 장담은 할 수 없다"며 "다만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 수요자들에게 회복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서울 재건축 한달새 1215억 '증발'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1215억원 줄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강남 3구에서만 942억원이 빠졌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1월 재건축 매매가 변동률은 전국 -0.17%, 서울 -0.23%를 기록했다.

최근 래미안 대치 청실 이 1순위 마감됨에 따라 강남 재건축으로 다시 관심이 쏠리는 듯했지만 급매물만 찾고 있는 수요자들과는 눈높이가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0.55%로 전달(-0.40%)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8·28대책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매매가가 올랐지만 후속 법안 통과가 지연되자 매수 문의도 크게 줄었다.

강동구 역시 -0.29%로 지난 10월(-0.10%)보다 낙폭이 넓어졌고, 송파구도 -0.14%로 약세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10월(0.01%)에 이어 0.04%로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10월 조합설립인가가 승인을 받은 신반포15차는 인근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분양을 앞두고 매도 호가가 다소 올랐다. /박선옥기자

투자, 대기업 줄이고 중견기업 늘려

삼성전자 18.6% 축소

삼성·SK·LG 등 국내 30대 그룹의 투자가 크게 준 반면 중견그룹의 투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업체인 CEO스코어는 3일 국내 500대 기업 중 3분기 실적을 공시한 29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3분기 누적 투자 실적은 94조5751억원으로 전년 동기 95조5190억원보다 1% 줄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 집단은 감수록 투자 감소폭이 컸다. 500대 기업 중 30대 그룹에 속한 155개사의 투자액은 68조25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줄었고, 10대 그룹은 4.1%, 5대 그룹은 6%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10대 그룹의 매출은 3.4%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율이 각각 4.8%, 3.1%를 기록했다.

CEO스코어는 대기업의 투자 감소폭이 큰 이유에 대해 30대 그룹 총 투자액의 23%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18.6%나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30대 그룹의 투자 증가율은 0.3% 플러스다.

개별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의 1~3분기 투자액은 15조72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나 줄었다. 연구·개발(R&D) 투자액 10조5259억원을 포함해도 총 투자비용은 26조2549억원으로 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매출 16.8%, 영업이익 37.6%, 순이익은 37.9% 늘어났다.

이에 반해 현대차는 투자액이 2조65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2.8%를 나타냈다. /유재근기자 kuerl@

"토마토보다 가벼운 카메라" 파나소닉은 3일 토마토보다 가벼운 초소형 미러리스 카메라 '루믹스 GM1'을 출시했다. 콤팩트형 크기지만 탑입식 내장 플래시까지 적용해 휴대성과 호환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파나소닉 제공

하쿠호도제일 새 비전 선포

광고회사 하쿠호도제일이 창립 24주년을 맞아 새로운 브랜드 비전 '링크 싱크(Link Think)'를 선포했다. '링크 싱크'는 다양한 생각들을 연결하고 결합시킴으로써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11번가 '슈피겐SGP 기획전'

슈피겐SGP가 12월 한 달간 오픈마켓 11번가와 함께 '12월 컬러에 물들다' 기획전을 실시한다. '스체설 컬러 시리즈' 제품을 구매하면 5%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한다.

또 구매 고객 중 12명을 추첨해 슈피겐SGP 공식스토어(www.spigen.co.kr)에서 사용 가능한 적립금 5만원을 지급한다.

천재교육 영어책 '수능LiTe'

천재교육이 수능 영어를 단기간에 마스터 할 수 있는 특강서 '수능 라이트(LiTE)'를 출시했다.

가격은 어법 및 유형독해 각 8000원이다. 문의 02)3282-8843

80세 아버지의 첫 암보험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 골다공증·고혈압 등 무심사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변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한 것.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 성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진단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함께 개발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롤링, 감출 수 없는 필력

새로 나온 책

소설
디어 라이프
앨리스 먼로/문학동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캐나다 소설가 앨리스 먼로의 최신작. 언니의 억사 사고 후 평생 그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동생을 그린 단편 '자갈', 전쟁터에서 귀향하다가 연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기차에서 뛰어내린 남자 이야기 '기차' 등 모두 14편의 단편이 실렸다.

문화
매혹과 잔혹의 커피사
마크 펜더그라스트/을유문화사

인류 최후의 마약이라 불리는 '커피'에 얽힌 흥미진진한 역사를 다뤘다. 커피의 유래를 시작으로 전 세계인들이 커피에 빠져들게 된 과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력 착취 현장 등을 소개한다. 가장 최근의 커피 흐름과 완벽한 커피 추출을 위한 팁도 담았다.

뫼리연간
서스 헬가브 말룬/북이십일

2차 세계대전 전쟁 영웅 비말 올세센이 살해당한 1960년대 사건과 1940년대 2차세계대전 당시의 살인 사건이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현재의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 이면에 숨겨진 사실들을 좁혀가며 벌어지는 상처와 고통이 그대로 전해진다.

여행
도시탐독
이지상/알에이치코리아

저자가 지난 20여년간 홍콩과 마카오에서 머무르며 도시를 탐색하고 읽어나간 이야기를 총망라했다. 식민통치를 거치며 극자의 자본주의를 이룩한 홍콩과 마카오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고, 각 장소들이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사연을 더해 도시의 진면목을 발견하도록 이끈다.

자기계발
스튜피드
리처 노튼·나탈리 노튼/미디어윌

상식과 달라서 '바보 같은 생각' 혹은 '바보짓'이라고 치부되는 것들이 개인의 삶과 조직에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지를 설명했다. 저자는 바보짓을 통해 혁신과 성공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이런 아이디어가 한 시대의 창의성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세이
남자를 위하여
김형경/창비

관계 맺기, 열정 사용법, 위험한 감정, 삶과 변화 등 4가지 측면에서 남자의 심리를 들여다본다. 부모와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남자의 억압된 감정들이 어떤 방식으로 분출되는지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대학생활 사용 설명서
오세정/랜덤하우스

경기도 대학생 기자단 출신 4명이 예비 대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생생한 대학 생활 정보를 정리했다. 개강 준비부터 대학 생활, 군 생활 마치기, A+를 위한 학업 관리하기, 인맥 넓히기, 사회 진출까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취미
진 정석 사전
이하성/삼호미디어

21세기의 바둑 관점에서 업그레이드 된 정석과 그에 담긴 지혜한 사고를 추적한다. 전체 내용을 65가지의 계단으로 분류하고 각 계단은 편의상 기본, 응용, 고급·보충으로 체계가 구성돼 있으며, 마지막에는 실전 감상 코너를 덧붙였다. /박지원기자

■ 주간 e북 인기 순위

집계기간: 11월 25일~12월 1일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1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3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4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5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6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7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8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9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0	트렌드 코리아 2014	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illegible]	[illegible]

/인터파크 제공

'해리포터' 중압감 벗으려 가명으로 출간한 스릴러 뛰어난 완성도 덕분 '발각'

쿠쿠스 콜링
로버트 갤브레이스(조앤 K 롤링)/문학수첩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이 로버트 갤브레이스라는 가명으로 발표한 신작 장편소설이 국내 출간됐다.

'쿠쿠스 콜링'은 영국의 톱 모델 룰라 랜드리가 자택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을 가난한 사립탐정 코모란 스트라이크가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 탐정 스릴러로 조앤 K 롤링 특유의 섬세한 묘사와 생생한 캐릭터가 살아있다.

룰라 랜드리 사건을 의뢰받은 스트라이크는 경찰이 간과한 증거와 증인들을 하나둘씩 파헤치며 룰라 랜드리의 경비원, 운전기사, 삼촌, 친구, 동료들을 만난다. 그 와중에 각각의 인물들이 룰라의 죽음에 예상보다 더욱 복잡하게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뿐 아니라 룰라의 아래층 이웃은 룰라가 어떤 남자와 싸우고 나서 발코니에서 떨어졌다는 진술을 하고, 급기야 증인들 중 하나는 스트라이크를 만난 뒤 몇 시간 후에 죽은 채로 발견된다. 젊은 모델이 살아가던 화려한 세계를 파고들수록 고독, 욕망, 숨기고 싶은 비밀들로 얼룩진 어두운 진실이 고개를 든다.

가난한 탐정, 톱스타의 죽음, 주변인들의 음모 등 겉으로 봤을 땐 기존의 탐정소설과 크게 다른 데 없지만 저마다 뚜렷한 개성을 가진 인물과 신랄한 풍자로 롤링만의 새로운 스타일로 재창조해냈다. 특히 짜임새 있는 구성과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묘사는 다음 시리즈까지 기대하게 만든다.

이 작품은 신인의 데뷔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숙하고 세련된 완성도를 보여줘 출간된 직후 출판계와 각종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그러던 와중 영국 일간지의 집요한 취재로 저자가 롤링임이 밝혀지며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 판매 부수 100만 부를 돌파했다.

롤링은 "'해리포터' 작가로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작품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생각에 가명으로 책을 냈다"며 "로버트 갤브레이스가 돼 자유롭게 쓴 글로 또 한 번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밝혔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이 책의 한 컷

미국의 사진작가 조던 매터(Jordan Matter)의 작품 '시간을 달리는 남자'다. 사람들로 붐비는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중세풍의 옷을 입은 남자가 날아갈 듯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흡사 '인간 탄환'을 보는 것 같다. 조던은 인간이 중력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이 1000분의 1초를 담아내기 위해 동일한 촬영을 수십 번 반복했다고 한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념으로 조던은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리 역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 분투해야 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 마음(이은?/사공이트) 중 - /황재용기자

청춘, 책장을 넘기며 불안을 넘기다

화제의 책

구체적인 인간에게 구체적인 행복을
곽명동/푸른숲

"책 읽기는 최소한의 저항이었다. 세상에서 날아오는 펀치를 맞고 다운되지 않기 위해 책에 힘을 주고 가드를 올리는 일이었다. 강력한 스트레이트를 날려 상대를 쓰러트리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가벼운 잽이라도 날려 '나'라는 존재를 지키는 작업이었다."

책 관련 팟캐스트 '소소한 책수다'를 진행하는 저자 곽명동(41)씨의 독서일기다. 강준의 소설부터 버트란드 러셀·노엄 촘스키 등의 작품을 관통하며 진솔하게 일상을 기록한 일기 속에는 저자의 생에 대한 고민의 자취들이 담겨있다.

저자는 대학신문사에서 신문을 만들던 시절, 철원에서의 군 생활, 전역 후 IMF를 맞이한 불안한 청춘일 때도 변함없이 책을 읽고 일기를 썼다. 책에서 만난 위로와 지혜는 작은 통찰이 됐다. 자꾸자꾸 쌓인 독서일기에는 청춘 시절에 품었던 의문과 책을 통해 그 답을 구하려 했던 사유의 흔적들이 시대에 대한 성찰과 함께 생동감 있게 녹아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길을 찾고자 하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는 한 발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배의 의미 있는 청춘을 보여준다.

저자는 "스스로가 찾고자 하는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책이고, 세상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고 수많은 세상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것도 책"이라고 말한다. 책 읽기를 통해 세상을 만나고 구체적인 인간이 되려고 했던 한 청년의 흔적을 저자가 들려주는 편안한 목소리로 만날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털털한 겨울여자 멋있네

다양해진 퍼 패션아이템 - TPO 맞춘 목도리·베스트·재킷 연출법

쌀쌀한 날씨에 따뜻하게 입으려니 둥둥해 보이고, 멋을 내자니 으슬으슬 춥기만 하다. 추운 겨울철에는 퍼(fur)를 활용하면 보온성과 스타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크로커다일레이디 신혜경 이사는 "겨울철 인기 아이템인 퍼는 베스트부터 목도리, 코트까지 디자인이 다양해 TPO(시간·장소·상황)에 맞게 스타일 변신이 가능하다"면서 "대신 퍼 아이템을 입을 때는 과도한 액세서리보다는 심플한 목걸이나 핀 등으로 포인트만 주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퍼 머플러로 심플·큐트하게

가장 무난한 퍼 아이템은 '머플러'다. 퍼 목도리는 울·모직·패딩 등 다양한 소재의 코트와 매치하기 쉬운데, 오피스룩이나 친구 모임 등 일상에서는 한 번 두를 수 있는 짧은 길이감이 적당하다.

퍼 배자가 자연스러운 크로커다일레이디의 체크 코트는 7부 길이의 소매에 체크 패턴으로 트렌디함이 물씬 풍긴다. 검정과 베색 등 단정한 색상이 오피스룩으로 적당하며, 소매의 퍼는 탈부착이 가능해 실용적이다.

◆퍼 베스트로 세련미 높이기

연말 모임에 갈 때는 퍼 베스트에 도전해봐도 좋겠다. 특히 회사에서 출근했다가 바로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직장인 여성들에게 퍼 베스트는 최고의 변신 아이템이다. 재킷이나 코트에 가볍게 걸쳐 입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이너 아이템으로 몸에 딱 붙은 디자인을 선택해 아우터를 벗었을 때 반전 효과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 올리비아로렌의 퍼 베스트는 레드폭스에 스웨이드 배자를 더해 고급스럽고, 칼라가 목 위까지 올라와 따뜻하다.

◆인조 퍼 코트로 화려하게

좀 더 화려해 보이고 싶다면 퍼 재킷이 제격이다. 특유의 볼륨감이 돋보이는 퍼 재킷은 연말 파티에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좋다. 깔끔한 검정색의 퍼 재킷은 특별한 액세서리 없이도 시크한 파티룩을 완성할 수 있다. 특히 케이크 퍼 재킷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 린의 '집 디테일 퍼 코트'는 아크릴 소재를 사용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뉴스&뉴스

자연의 '트루 서포터즈' 모집

● CNP차앤박화장품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트루 서포터즈' 7기를 25일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20명은 오프라인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월간 브랜드 모니터링과 신제품 아이디어 제안, SNS 채널 미션 수행 등을 맡하게 된다. 매월 CNP차앤박화장품의 베스트 제품을 지원하며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허벌 에센스 '캐모마일' 출시

● 허벌 에센스가 프리미엄 라인 '허벌 에센스 클래식 릴랙싱 캐모마일 컬렉션'을 선보였다.

캐모마일·알로에베라 등 식물 유래 성분을 배합해 만든 무실리콘 샴푸와 컨디셔너 2종으로 구성됐다. 무실리콘 샴푸는 모발이 힘이 없어 스타일링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가격은 각 1만3000원대로 올리브영 등에서 판매한다.

마몽드 '로즈' 스타후기 공개

● 마몽드가 로즈 시리즈 출시를 기념해 송경아, 안영미, 김새롬 등 개성 있는 세 여자의 리얼 토크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영상은 단순 제품 광고가 아닌 세 사람이 직접 경험한 로즈 시리즈의 후기를 보여줘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로즈 시리즈는 물 대신 90.89% 장미수를 함유한 로즈워터 토너, 로즈워터 버블 클렌징폼, 로즈 오일앤솔트 젤 스크럽으로 구성됐다.

길어진 다운재킷 'S라인' 살아있네

엉덩이 감싸고 허리 잘록 롱코트형 여성 제품 인기

올겨울 다운 재킷이 길어졌다. 아웃도어 업체들이 겨울 추위에 대비해 엉덩이를 덮는 길이감의 여성용 롱 다운 재킷을 잇따라 출시하며 여심을 녹이고 있다. 대부분 일반 롱코트처럼 평소에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에 날씬한 허리 라인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네파의 '엘라스티코 구스다운'은 무릎 위까지 내려오는 기장으로 허리 부분에 밴드를 삽입해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강조했다. 어센틱이 선보인 '구트 롱 구스다운'은 캘리포니아의 고밀도 소재를 사용해 가벼우면서도 따뜻하다.

휠라의 프리미엄 롱 다운 재킷은 4개의 큰 포켓과 퀼팅테이프 장식으로 젊고 귀여운 느낌을 강조한 제품이다. 탈·부착이 가능한 털을 목 부분에 적용한 데다 카키나 레드 색상이 블랙과 어울려 고급스럽다.

아이더도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야외 활동은 물론 일상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롱 방한 재킷 3종을 내놨다. 케이스위스의 '캠퍼 다운재킷'은 시베리 스타일로 직장인들의 비즈 아웃도어룩으로 손색이 없다.

휠라 관계자는 "롱 다운 재킷은 그간 운동선수나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으나 최근 스타일을 강조한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철 없는' 미니스커트

2030女 68% "겨울에 착용"

스타일에 민감한 20~30대 여성들은 아무리 추워도 미니스커트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가 최근 20~30대 여성 회원 3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추운 날에도 미니스커트를 입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8%(532명)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문 결과를 증명하듯 아이스타일24에서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1월 미니스커트의 판매율이 전월 대비 147% 증가했다. 이런 트렌드는 레깅스·부츠 등 겨울철 미니스커트와 매칭할 수 있는 아이템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쇼핑몰 측은 풀이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레깅스와 롱부츠 역시 전월 대비 각각 70%, 21% 판매율이 늘었다.

아이스타일24 정경린 MD는 "가죽·모직·니트 소재의 미니스커트는 따뜻한 데다 보온성이 뛰어난 롱부츠·기모 레깅스와 코디하면 겨울 시즌만의 멋을 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스무디킹 겨울음료 '핫 후르츠티'

과육 씹히는 레몬티 등 4종

글로벌 넘버 원 오리지널 스무디 브랜드 '스무디킹'(대표 김성완)은 쌀쌀한 계절 과일을 통해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는 '핫 후르츠티'를 최근 새롭게 선보였다. 스무디킹의 핫 후르츠티는 레몬티, 블루베리티, 자몽티, 애플시나몬티 등 4종으로 구성돼 있다.

레몬티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돼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레몬을 주재료로 하고 있다. 과육이 살아있는 레몬 스퀴즈에 슬라이스한 레몬까지 더해져 더욱 신선하고 상큼하게 즐길 수 있다.

자몽티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자몽 스퀴즈를 듬뿍 담았다. 블루베리티의 주재료인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력이 우수한 슈퍼푸드로 불리고 있어 다양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애플시나몬티는 애플과 망고의 새콤달콤한 맛에 시나몬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져 더욱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 /명병철기자

제가 이래봬도 돌직구 스타일

박스오피스 1위 달리는 '열한시' 김옥빈

묘하게 생긴 큰 눈을 가진 김옥빈(26)은 남들과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긴다. 작품에서도 영화 '박쥐' '고지전' '시체가 돌아왔다' 에서 지극 평범한 역할보다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매력을 발산해왔다. 지난달 28일 개봉 직후 박스오피스 1위로 흥행몰이 중인 영화 '열한시'에서는 미래에 대한 비밀을 간직한 여인으로 관객 앞에 섰다.

장르 국내 최초의 타임스릴러 장르라는 점 때문에 우려와 기대를 한꺼번에 받으며 베일을 벗은 이 작품에 대해 "결과가 잘 나와줬다"며 기뻐했다.

"솔직히 컴퓨터그래픽(CG)의 완성도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CG 때문에 개봉까지 늦어졌죠. 그런데 화려한 비주얼은 없어도 스릴러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그 점이 고마워서 영화를 연출한 김현석 감독님을 꼭 안아줬답니다."

흥행 김옥빈은 '열한시'가 SF물이 아닌 SF 요소를 지닌 스릴러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영화는 시간 이동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24시간 후의 미래에서 가져온 폐쇄회로(CC)TV 속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본 후 시간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극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연구원 영은 역을 연기한 그는 "미래는 초반 관심을 끌기 위한 설정이고, 진짜 이야기는 미래를 다녀와서 벌어지는 일이다. 올해 '더 테러 라이브' '숨바꼭질' 등 스릴러물 성적이 좋았는데 이번 영화도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고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성격 외모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분위기와 달리 강단 있고 거침없는 성격이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절대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만약 극중 배역처럼 24시간 뒤의 미래로 이동하면 어떨 것 같느냐는 질문에 "하루 뒤는 별 감흥이 없을 것 같다"면서 "만약 가까운 미래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도 그냥 죽음을 받아들일 것 같다. 죽음을 당하기까지의 과정이 무섭지, 죽음 자체는 무섭지 않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동료 극중 위험 속에서도 시간 이동 프로젝트를 고집하는 우석 역의 정재영과 영은의 연인으로 나온 최다니엘과도 이래우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막역하게 지냈다.

"남자 연기자들이 여배우만 빼고 노는 꼴은 못 봐요. 촬영하면서 시간날 때마다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놀았는데 제가 늘 1위를 했어요. 재영 선배는 관록 있는 연기자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속이는 게임만큼은 못하는지…."(웃음)

차기작 남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성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주로 독특한 작품에 끌린다.

"독특한 작품을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흥분돼서 심장이 막 쿵광쿵광하죠. 이번 영화는 심장은 뛰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하게 되는 작품이라서 강하게 끌렸어요. 다음엔 대책 없이 망가지는 캐릭터를 해보고 싶어요."

/박정환기자 pjh0427@metroseoul.co.kr

사진/써클엔터테인먼트(구 이음) 디자인/박은지

이수만 주식부자 1위

1900억… 22개월만에 1위 탈환
양현석 1700억 2위… 접전 치열

이수만(사진 왼쪽)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회장이 22개월 만에 연예인 주식부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3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2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 회장의 지분 가치 평가액은 1866억8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회장의 지분 평가액은 연초(1월 2일)보다 83억5000만원(4.3%) 감소했다.

주식시장에서 폭풍 질주를 해온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양현석(오른쪽) 대표는 1740억2000만원을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양 대표의 평가액은 연초보다 487억원(21.9%) 감소했다. 이 같은 순위 비중은 최근 공개된 3분기 실적에서도 예견됐다.

SM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820억6000만원, 영업이익은 150억3000만원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9.3%와 26.6% 증가했다. 각각 70만 명과 10만 명을 동원한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의 일본 돔 투어, 국내 엑소의 음반·음원 판매 등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YG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0.98%, 10.8% 감소한 296억8300만원, 63억5700만원을 기록했다. 지드래곤의 해외 활동이 일본에 집중되면서 일본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콘서트 매출액이 감소했고 싸이의 해외 공연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실적 부진의 이유로 파악된다.

4분기와 내년 실적에 기댄 두 수장들의 주식 평가액 순위 다툼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SM의 4분기 개별 실적의 경우 동방신기 일본 스타디움 콘서트 15만 명, SM타운 중국 공연 7만 명, SM타운 일본 등 투어 10만 명 등의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170억원 이상 발생하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YG는 지난달 시작해 내년 1월 끝나는 빅뱅의 일본 돔 투어 77만 명, 1월 빅뱅의 서울 공연, 2NE1의 월드투어 등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싸이의 연말 공연과 연이을 신곡 활동은 직접적인 수치 반영 이상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어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장승호기자 suno@metroseoul.co.kr

YG신예 위너 日첫 팬미팅 8000명… 스타 찜!

내년 국내 데뷔… SM은 프리데뷔팀 에스엠루키즈 선보여

음악계 선두를 다투는 두 기획사의 미래를 책임질 신예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YG엔터테인먼트가 7년 만에 내놓은 남성 그룹 위너(사진 왼쪽)는 데뷔도 하기 전에 국내외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2일 일본 오사카 세무시 광장에서 개최한 첫 공식 이벤트 '헬로우 위너' 현장에는 8000여 명의 팬이 몰렸다.

평일 이른 오전임에도 위너를 보기 위해 몰린 팬들이 광장을 가득 채웠고 멤버와 인사를 나눈 팬들은 감동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위너는 오사카에 대한 인상을 유창한 일본어로 말해 눈길을 끌었다.

내년 국내에 정식 데뷔할 위너는 빅뱅의 일본 6대 돔 투어 오프닝 무대에 오르며 일본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정식 데뷔 전 연습생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프리 데뷔팀 에스엠루키즈(오른쪽)를 선보인다. 에스엠루키즈는 SM 소속 연습생의 브랜드로 데뷔 이전에도 음원 발매, 공연, 버라이어티 출연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인원 수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포맷으로 활동을 하며 주로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리메이크해 부른다.

SM은 "에스엠루키즈로 공개되지 않는 연습생들은 기존 방식으로 데뷔한다. 두 방식을 병행하는 스타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상속자들' 인기 뒤엔 중년배우 7인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성령·김미경·정동환·최원영·최진호·윤손하·박준금

최근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SBS 수목극 '상속자들'의 중견배우들이 관록과 연기력으로 흥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국그룹의 회장 역을 맡은 정동환은 배다른 자식들인 원(최진혁)과 탄(이민호)을 쥐락펴락하며 형제의 난을 조성하는 등 서슬퍼런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다.

박준금은 탄의 엄마 기애(김성령)의 뺨을 때리고 물을 끼얹는 등 독한 입담과 서늘한 눈빛을 내뿜고 있다.

사랑도 계산기를 두들겨보는 철저한 돈 지상주의자 이에스더 역을 맡은 윤손하는 딸 유라헬(김지원)까지도 돈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스더와 재혼을 준비한 호텔 제우스 대표 최동욱 역을 맡은 최진호는 카리스마 넘치는 행동파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아들 영도(김우빈)에게조차 주먹을 휘두르는 까칠한 면모를 가진 인물이다.

김성령은 '허당 사모님' 한기애 역을 완벽하게 연기해내며 빈틈 많은 약점을 번번이 들키고 마는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제국그룹 본가 입주 가정부 박희남 역을 맡은 김미경은 눈빛과 손짓, 표정만으로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를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극하고 있다.

따뜻한 내면을 감춘 회색인자 비서실장을 맡은 최원영은 결제 본능이 돋보이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작사 화앤담픽쳐스 관계자는 "중견 대세 배우들은 젊은 배우들을 이끌어가며 살아있는 연기를 펼치고 있다. 질리지 않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한다"고 밝혔다.

/장상일기자 yya@

star bag

'크리스마스' 표절 아냐

걸그룹 크레용팝의 '크리스마스'가 일본 애니메이션 '누들 3세' 테마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작곡가 김유민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유민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크리스마스'는 레퍼런스도 없이 만든 순수 창작물이다. '루팡 3세'라는 곡을 알지 못했기에 나온 장르의 유사성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라고 표절을 전면 부인했다.

美 콤플렉스 '올해의 노래 50'

빅뱅 지드래곤이 미국 음악 전문 잡지 '콤플렉스'로부터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콤플렉스 측은 2일(현지시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지드래곤을 '한국 팝의 슈퍼스타'라고 칭하며 9월 발매된 솔로 2집 '쿠데타'의 수록곡 '늴리리야'를 자사가 선정한 '2013년의 노래 50'에 포함했다. YG의 메인 프로듀서인 테디와 함께 공동 작곡한 '늴리리야'는 한국 민요 '늴리리야' 소스와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접합한 힙합곡이다.

특집다큐 '엄마의 꿈' 출연

배우 고소영이 ○일 방송되는 MBC 나눔 특집 다큐멘터리 '엄마의 꿈'에 출연한다.

이 프로그램은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싱글맘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이번 촬영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싱글맘들에게 진솔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고소영은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다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기를 키우는 건 기특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1년만에 정규앨범 발표

그룹 어반자카파가 1년여 만에 정규앨범을 발표했다.

지난주 '코끝에 겨울'을 선공개해 팬들의 기대감을 높인 데 이어 3일 정규앨범 '03'을 공개했다. '코끝에 겨울' '니가 떠나는 것' 등 두 곡이 타이틀곡이다. 멤버 각자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솔로곡들을 이번 앨범에도 수록했다. 6일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출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LOVESTORY in DECEMBER

국내 최대 무료신문 메트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이웃 간의 사랑나눔,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2013 사랑의 송년음악회 러브스토리 인 디셈버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아름다운 클래식과 오페라 명곡 등이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선율로 펼쳐집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감동이 가득한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대교환권 당첨자는 12월4일까지 메트로신문사에서 직접 수령 바랍니다.

2013. 12.11(수)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주최 metro 주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뮤지컬에 K-팝 스타들 몰린다… 왜?

연말이면 시상식이나 콘서트 등으로 더욱 바빠지는 K-팝 스타들이 뮤지컬 무대에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13일부터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될 '삼총사'에서는 제국의 아이들 박형식, 샤이니 키, 슈퍼주니어 성민, 2PM 준케이, FT아일랜드 송승현이 주인공 달타냥을 번갈아 연기한다. JYJ 김준수는 16일 개막할 뮤지컬 '디셈버'에 출연할 예정이며, 비스트 양요섭은 지난달부터 '요셉 어메이징' 무대에 오르고 있다.

요즘 가장 잘나간다는 K-팝 그룹 멤버들이 콘서트 무대가 아닌 뮤지컬 무대로 집결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삼총사'의 경우처럼 한 작품에 무더기로 출연하고 더욱이 한 배역을 동시에 연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연 관계자들은 연말을 맞아 대작이 올라는 시기적 특성에 아이돌 마케팅이 더욱 절실해진 제작사의 필요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자신의 개인 인지도를 높이길 원하는 아이돌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한다.

한 공연 관계자는 "뮤지컬이 작품 중심인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배우 중심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 팬덤의 영향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특히 K-팝의 인기로 인해 다국적 팬덤은 이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팬들도 상당해 티켓이 거의 매진된다"면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아이돌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비스트 양요섭, JYJ 김준수, 제국의아이들 박형식.

박형식·키 등 '삼총사' 출연 김준수 '디셈버' 양요섭 '어메이징' 무대
팬덤 영향력 막강… "공연 인지도 높인다" vs "작품 완성도 떨어져"

이어 "아이돌은 그룹 내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존재감을 알리기 쉽지 않지만 뮤지컬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관객을 동원할 수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많아도 본인의 의지로 우리해서라도 출연하고 싶어하는 아이돌이 많다. 출연을 원한다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몇 명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관객의 선택폭을 늘리고 공연의 해외 인지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반기는 쪽이 있는 반면,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공연계의 물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 후자의 경우 아이돌이 스케줄이 워낙 많다 보니 작품에 집중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이 출연하는 작품의 제작사들은 이들의 실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김준수의 경우 뛰어난 실력으로 아이돌의 편견을 없앤 바 있다.

'삼총사' 관계자는 "스케줄 문제는 배우들끼리 잘 조율해가며 해결하고 있고, 아이돌 역시 바쁜 가운데에서도 프로답게 빈틈 없이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력이 부족한 아이돌이 많았지만, 지금은 경험을 쌓은 아이돌이 많아져 예전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고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둬줄 것을 당부했다.

/탁진현 기자 tsk0427@metroseoul.co.kr

마이클 잭슨의 화려한 부활

'스릴러 라이브' 국내 첫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일생을 그의 히트곡으로 꾸민 뮤지컬 '스릴러 라이브' 웨스트엔드 오리지널팀 공연이 한국에 첫선을 보인다.

7~8일 부산 벡스코를 거쳐 10~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 뮤지컬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잭슨을 소재로 한 콘서트형 뮤지컬이다. 잭슨이 살아있던 2006년 초연돼 지금까지 26개국에서 250만 명 이상을 동원했고, 웨스트엔드 공연 2020회를 기록했다.

잭슨이 잭슨파이브 시절부터 팝의 황제가 되기까지 남긴 히트곡 '아윌 비 데어' '맨 인 더 미러' '빌리 진' '스릴러' 등을 들려준다. 5명의 마이클 잭슨과 15명의 배우, 댄서가 라이브로 생전 잭슨의 무대를 완벽하게 재현한다.

문의 1599-0701 /[illegible]

고전 발레 '호두까기 인형' 5색 무대

차이코프스키의 낭만적인 음악이 흐르는 고전 발레극 '호두까기 인형'이 올해도 다양한 버전으로 관객을 찾는다.

국립발레단은 18~25일 예술의전당에서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을 33년간 이끌었던 유리 그리가로비치가 안무한 볼쇼이극장 버전의 '호두까기 인형'을 무대에 올린다. 단체를 대표하는 무용수들이 총출동해 고난도의 춤을 선보인다.

유니버설발레단은 20~31일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마리우스 프티파가 안무한 마린스키극장 버전으로 공연을 펼친다. 극중 인물이 마술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선사하고, 스페인·중국·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춤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서울발레시어터는 20~22일 구리아트홀 무대에 무용수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 춤을 추는 등 한국적인 색채를 강조한 '호두까기 인형'을 올린다. 23~29일 노원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르는 이원국발레단은 이 작품에서 14세 발레리나 윤서후양을 역대 최연소로 주역 데뷔를 시켜 눈길을 끈다.

뮤지컬로도 선보인다. 대표적인 한류 브랜드로 자리 잡은 '난타'의 프로듀서 송승환이 만든 어린이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사진)이 내년 1월 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에서 공연된다. 집에 있는 동화책을 기부하면 관람 티켓을 45% 할인받을 수 있다.

/[illegible]

김혜자의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

Oscar et la dame rose

2013.11.15 *To* 12.29 타임스퀘어 CGV신한카드아트홀

Event 1

12월 마티네공연 특별할인! R석, S석 40%

Event 2

12월 송년할인! 전석 30%

‘공항철도 트래블센터’ 개소

인천공항 입국객 위해 '무휴'

코레일공항철도는 지난 2일 공항철도 트래블센터(Airport Railroad Travel Center)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트래블센터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공항철도 운행 정보와 서울 관광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트래블센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방문 개별 자유 여행객에게 도심 이동 교통수단과 관광지 등을 연계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여객터미널에서 인천공항역이 위치한 교통센터로 가는 길목에 개소됐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게다가 트래블센터에는 언어권별 전문 투어 매니저(영어·일본어·중국어)가 상주해 사전 정보 없이 한국을 찾은 여행객에게 한국의 관광 명소 및 호텔 등 숙박에 관한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또 공항철도 직통열차 및 KTX 등의 철도 승차권도 발권되며 숙박 및 여행상품 예약, 제휴 여행사의 미팅 센딩 대행 업무도 가능하다.

심혁윤 코레일공항철도 사장은 개소식에서 "트래블센터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제공할 수 있는 거점에 위치해 있다"며 "관광객들에 원하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운영의 묘를 살려 한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용기자

뇌졸중 ‘골든타임 3시간’

환절기·겨울 발병 늘어
저림·발음 어눌 증상땐
119로 긴급 병원 후송을

뇌졸중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이 되면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번 발생하면 사망 혹은 반신마비와 같은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은 조기 발생시 빠른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뇌졸중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조증상 자가체크 필요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나눠진다.

뇌졸중은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갑자기 한쪽 얼굴, 팔다리 등에 힘이 빠지거나 저림 증상이 느껴지며 보행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말을 못 하거나 못 알아듣거나 혹은 발음이 어눌해지기도 한다. 또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거나 한쪽으로 몸이 쓰러지고 평소에 없던 심한 두통이 나타나며 눈이 보이지 않았다가 좋아지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

◆치료 빨라야 사망률·후유증 줄어

뇌졸중은 발병 후 3시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사망률을 줄이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119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뇌경색으로 인한 뇌졸중이라면 혈용고제를 투여해 혈전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도록 하거나 피의 응고현상을 저지해야 한다. 단 몇 분만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도 뇌세포는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뇌출혈의 경우 우리나라 환자는 고혈압에 의한 뇌실질내 뇌출혈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혈압 조절, 뇌압 조절 등의 응급 치료가 중요하다. 또 환자가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재활치료는 환자의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 신경을 회복하고 기능을 되찾게 하는 것이다.

이명종 명지국제병원 뇌신경센터 원장은 "고령,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이 뇌졸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며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해 내 몸 상태를 파악하고 평소 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송재원기자 [email]@metroseoul.co.kr

머그잔마다 ‘하얀 눈’ 수북

커피전문점 시즌 메뉴들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출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커피전문점 업계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발길을 돌리기 위해 보다 발 빠른 관련 마케팅에 한창이다.

매장 안팎을 빨강, 초록색의 장식과 따뜻한 느낌의 조명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고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판 머그컵, 텀블러 등 각종 기획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등 차별화된 크리스마스 시즌 메뉴를 앞다퉈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눈과 입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각 커피전문점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내놓은 시즌 음료는 화려한 컬러의 음료 원재료와 함께 다양한 색상의 토핑, 흰색의 눈을 연상시키는 휘핑 크림을 적용해 맛은 물론이고, 보는 즐거움까지 더했다.

'카페 드롭탑'은 올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로 '라벤더 베리 모카'와 '트윙클 민트 모카' 등 모카 2종을 선보이고 있다. 모카 2종은 달콤 쌉싸래한 카페모카에 크리스마스 시즌 특유의 화려한 시각적 요소를 적용했다. 음료의 맨 아랫쪽에는 카페모카가 깔리고 가운데에는 라즈베리 또는 민트를 섞은 스팀우유가, 맨 위에는 흰눈이 쌓인 것 같은 휘핑 크림과 조명에 화려하게 반짝이는 듯한 토핑이 올려 각각의 레이어가 층을 이뤄 마치 크리스마스트리와 장식을 연상시킨다.

할리스커피에서도 '마시멜로 라떼'(지안 핫초코'에 마시멜로와 하얀 우유 거품, 다크 초콜릿 토핑을 추가해 겨울 시즌 분위기를 살렸다.

탐앤탐스의 크리스마스 시즌 메뉴 3종 '루돌프라떼(초코칩 크런치)'와 '산타라떼(레드빈라떼)', '골드라떼(군고구마라떼)'는 흰색, 붉은 빛과 알록달록한 팝핑슈가 토핑을 더해 화려함을 더했다. /정영일기자 [email]

탐앤탐스와 함께 크리스마스
Wish your Pop'n CHRISTMAS!

스낵 한봉지씩 꿰찬 꽃미남·8등신 미녀

과자 CF모델 변화 바람

새로운 제품 출시와 더불어 광고에서도 스낵 시장이 변하고 있다.

최근엔 젊은 여성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꽃미남 배우나 날씬한 여성 스타들을 모델로 한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농심 새우깡은 최근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영화 '관상' '노브레싱'을 통해 젊은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꽃미남 스타 이종석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으며 이후 새우깡 매출이 약 10%가량 뛰어올랐다.

오리온 포카칩은 광고 모델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배우 김수현을 선정하고, 여성 소비자들에게 어필했다. 롯데제과도 신제품 세계요리스낵의 광고 모델로 신세대 배우 김우빈을 선정, 지난 4월 광고를 온에어한 바 있다.

다이어트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날씬한 여성 스타들을 기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농심 웰빙그는 구운감자칩 스페셜K 라이트 칩의 광고 모델로 가수 손담비를 발탁했다. 손담비의 건강하고 날씬한 이미지를 내세워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낮은 칼로리의 감자칩이라는 것을 어필하고자 했다.

오리온도 작년부터 도도한 나쵸의 광고 모델로 섹시한 이미지의 톱스타 전지현을 기용해 오고 있다. 농심은 수미칩의 광고 모델로 전 연령대의 사랑을 고루 받는 가수 겸 연기자 수지를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양성일기자 [email]

JAL재단 ‘세계 어린이 하이쿠 대회’

내년 3월말까지 작품 접수

JAL재단은 내년 3월 31일까지 '세계 어린이 하이쿠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콘테스트는 일본의 전통시 하이쿠를 통해 어린이들의 감성과 창작력을 키우는 동시에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JAL재단은 2년에 한 번씩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다.

제13회 세계 어린이 하이쿠 콘테스트 2013 2014 주제 꿈

13회를 맞는 이번 대회의 주제는 '꿈'이며 응모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한글로 지은 3행시와 함께 손수 그린 그림이나 직접 만든 창작품을 일본항공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또 JAL재단은 입상작 및 우수작으로 선정된 참가자에게 상장과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항공 홈페이지(http://booking.jal.co.kr/ko/News/Whats/2013/11/mlnews_haiku_131125.as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문의 (02)3788-5738, 051)469-1122 /[illegible]기자

'손안의 교실' 출석해볼까

MBA·인문학·중국어 등 직장인 위한 스마트폰 활용 강좌 다양

연말연시를 맞아 직장인들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갈수록 험난해지는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해야 하는데 동창회 회식 동우회 등 각종 모임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인맥 관리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고민에 빠진 직장인들을 위해 교육업계들이 잇따라 선보인 '스마트한 자기계발' 비법을 알아본다.

온라인 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각종 모임 이동 중에도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스마트패키지'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선보인다.

스마트패키지는 직장인들에게 인기 있는 휴넷 MBA, 휴넷 행복한 인문학당 등을 최신 스마트 기기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휴넷 MBA와 행복한 인문학당 공사철 100클럽은 동시에 수강하면 아이패드 미니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만원 할인된 가격에 수강할 수 있다.

휴넷 MBA 또는 행복한 인문학당 공사철 100클럽을 수강하는 직장인에게도 아이패드 미니나 구글 뉴 넥서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직장인이라면 YBM시사닷컴(사진 위)의 'YBM기초영어'가 유용하다. '왕초보 코스'와 '초보 코스' 총 2개 코스로 구성돼 맞춤형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요 어휘를 간략히 짚어주는 '핵심 강의', 노래 및 라임으로 공부하는 '응용 연습 강의', 마무리 학습을 위한 '복습오디오' 등 3단계 학습을 완벽히 익힐 수 있다. 특히 이달 말까지 수강 후 만족하지 못할 경우 7일 이내에 접수하면 100% 환불받을 수 있다.

직장인 외국어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어도 스마트하게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교육 컨텐츠 전문기업 위버스마인드가 최근 출시한 중국어 학습기 '뇌새김 중국어(아래)'는 기존 '뇌새김 영어' 시리즈에서 인정받은 뇌새김 효과를 그대로 살려 중국어 학습 과정에 적용한 것이 장점이다. 중국어의 독특한 발음 성조 학습부터 단어, 문장, 회화까지 그림과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특히 하루에 13분씩 뇌새김 중국어의 학습 과정만 따라 하면 중국어를 처음 접하거나 한자를 잘 모르는 학습자도 누구나 쉽게 마스터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서승희기자

목 대신 배에 힘주면 '나도 성악가'

장윤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③

윤기 나는 목소리는 목이 아닌 배에서 나온다.

성악가처럼 복식호흡으로 발성을 하면 깊고 풍부한 목소리를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다. 발표 전달력을 높이는 데다 상대방에게 신뢰감 주는 느낌도 선사할 수 있다. 복식호흡의 관건은 배 속에 공기를 많이 집어넣는 것이다.

W스피치 학원의 도움을 받아 복식호흡을 연습해봤다.

일단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공기가 흐르는 길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일어선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가볍게 들면, 체중을 싣고 있는 다리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아랫배에도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입은 다문 채 코로만 숨을 가득 들이마신다. 지난 회 설명했듯이 어깨가 들썩이지 않고 배만 볼록하게 만들어야 한다. 배에 공기가 찬 느낌이 들면 배에 힘을 준 채 '아~' 소리를 내본다. 이때 목이 아닌 배에서 소리가 뛰어나온다는 움직임을 느껴야 한다.

입 모양도 중요하다. 입안의 긴장을 풀어서 구강 내부를 최대한 둥글게 만들어야 한다. 혓바닥은 최대한 낮춰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뻗어져 나오게 공간을 만든다. 목소리가 앞니 뒤쪽을 치고 나온다는 자세로 발성을 한다. 소리를 내는 동안 배는 점점 납작해질 것이다. 배 속 공기가 다 소진될 때까지 목소리를 길게 빼낸다. 소리가 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식호흡에 익숙해진다.

매일 꾸준히 연습하면 배에 힘이 붙으면서 목소리에 탄력이 생길 것이다. 처음에는 '아~' 발성을 한 후 차츰 '대한민국~'처럼 단어 길이를 늘려본다. 처음에는 감을 찾기 어렵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매끄러운 복식 발성으로 향상될 수 있다.

아나운서의 뉴스 진행 목소리를 유심히 들으면서 복식 발성의 '맥 점' 목소리가 어떤 느낌인지 파악하는 것도 좋다.

지방 여대생 위한 취업캠프

지방대를 다니는 여대생들을 위한 취업캠프가 열린다.

한글 특송회사 페덱스 코리아는 미래의 동재단과 함께 '제3회 페덱스 커리어 캠프'(www.partners-korea.org) 참가자를 29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여성 친화 직종 소개와 여성 선배에게 듣는 취업 전략 등 여학생에게 특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 40명을 선발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는 3명은 페덱스 코리아의 동계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3D 프린터로 시제품 만들어드려요" 3일 서울 종로구 [illegible] 열린 3D 프린터 시제품 제작소 'SK 팹랩서울' 개소식에서 이완재(오른쪽 셋째) SK텔레콤 CR부문장, 고산(오른쪽 둘째) 대표가 예비 창업가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졸의 반란·탈스펙 바람…'실속채용' 붐

2013 취업시장 5대 이슈

구직난 속 구인난, 채용 규모 양극화, 고졸 채용 증가.

올 한 해 취업의 현주소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2013년 취업 시장 이슈들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구인난은 여전=고용노동부의 10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국내 모든 기업의 미충원 인원 9만3000명 중 92.5%가 중소기업에 쏠렸다. 구인-구직 미스매치로 인한 고통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채용 규모는 소폭 증가=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00인 이상 기업 435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 채용동태와 전망'을 조사한 결과 신규인력 채용 규모는 전년에 비해 2.8%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3.2%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오히려 4.9% 줄어 채용 양극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졌다.

◆고졸 채용 증가율 대졸 앞서=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고졸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소폭(5.1%) 증가했다. 이는 대졸 채용 증가율(1.8%)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수도권 집중=통계청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7~9월) 취업자 수는 경기(609만6000명·24%)가 가장 많았다. 서울(512만4000명·20%), 부산(164만6000명·6%), 경남(163만6000명·6%), 인천(146만명·6%), 경북(141만6000명·6%), 대구(118만9000명·5%), 충남(118만6000명·5%)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이 전체 취업자의 50%에 달하는 셈이다.

◆탈스펙 바람 거세=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166명을 대상으로 '채용 시 스펙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8%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특히 신뢰도가 낮은 스펙으로는 '출신 학교(학벌)'(39.5%), '학점'(38.4%), '토익 등 공인 어학 성적'(33.7%), '학력'(31.4%), '해외 경험'(19.3%) 순이었다. 이에 따라 탈스펙 전형을 도입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SK와 KT는 올해 오디션 방식을 도입했고 현대자동차는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이색 채용을 진행해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국명기자

무서운 10대 여자 골퍼 김효주·리디아고 한판!

6월부터 대만서 열리는 KLPGA 시즌 개막전서

한국여자골프의 기대주 김효주(18·롯데·사진 왼쪽)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6 오른쪽)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정면대결을 펼친다.

6일부터 사흘간 대만 타이베이의 미라마르 골프장(파72 6316야드)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14시즌 개막전인 스윙잉스커츠 월드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다.

총상금 80만 달러(약 8억4500만원)가 걸린 이 대회에는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5·KB금융그룹)를 비롯해 디펜딩 챔피언 최나연(26·SK텔레콤), KLPGA 3관왕 장하나(21·KT) 등 한국과 대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멤버까지 9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아마추어 시절 세계 랭킹 1~2위를 다퉜던 김효주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의 대결이 관심을 끈다.

김효주는 올해 KLPGA 신인상과 최저타수상을 차지하며 투어 데뷔 첫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LPGA 투어 캐나다여자오픈을 2년 연속 우승한 리디아 고는 10월 프로 전향을 선언했다. 프로 데뷔전인 CME그룹 타이틀홀더스에서 공동 21위에 올라 무난한 성적을 낸 리디아 고는 두 번째 대회로 스윙잉스커츠를 선택했다.

라이벌이자 절친한 언니 동생 사이인 김효주와 리디아 고는 4월 LPGA 롯데챔피언십에서 동반 플레이하면서 나란히 공동 9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밖에 대만의 슈퍼스타 쩡야니, 스웨덴의 안나 노르드크비스트 등도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상훈기자

'빅보이' 이대호 소프트뱅크행

"3년 154억 보장할 듯"

'빅 보이' 이대호(31·사진)가 퍼시픽리그 최고 명문 구단인 소프트뱅크 호크스 입단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니칸스포츠는 3일 "소프트뱅크가 자유계약선수 이대호와 협상 중이다"고 보도했다. 이대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과의 협상 창구도 열어놓고 있지만 일본 언론은 꾸준히 이대호의 소프트뱅크행을 예상해왔다.

소프트뱅크는 올해 퍼시픽리그 4위에 오르는 데 그친 뒤 시즌 종료와 함께 "4번 타자와 선발 투수를 보강하겠다"고 선언했다.

니칸스포츠는 "소프트뱅크가 오릭스 버펄로스를 떠난 이대호, 한신 타이거스를 퇴단한 제이슨 스탠드브릿지를 영입해 4번 타자와 선발진을 강화하려 한다"고 전했다.

사인만 남았다

또 소프트뱅크가 이대호 영입을 위해 3년 15억 엔(약 154억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호는 일본 진출 첫해인 지난해 타율 0.286, 24홈런 91타점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타율 0.303에 24홈런 91타점을 기록하며 확실한 용병 4번 타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대호와 오릭스는 지난달 15일 협상 결렬을 인정했으며, 같은 달 30일로 원소속팀 오릭스와의 독점협상 기간이 끝났다. 이에 따라 이대호는 1일부터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게 됐다. 예상대로 소프트뱅크가 가장 발 빠르게 이대호 영입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대호가 메이저리그를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 선임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구단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이대호의 메이저리그 진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성운기자 jsw@metroseoul.co.kr

K리그를 빛낸 별들 올해 K리그 그라운드를 누빈 스타들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3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3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은 포항 스틸러스의 황선홍 감독과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한 김신욱(울산 현대)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대성·김치곤·김승규·아름·김원일·이명주·김신욱·황선홍 감독·고무열. /연합뉴스

"메시, 그라운드로 곧 돌아온다"

부상 후 첫 슈팅훈련

햄스트링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사진)의 복귀가 임박했다.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는 3일 "메시가 햄스트링을 다친 이후 처음으로 훈련장에 돌아왔다"며 "물리치료사의 엄격한 관리를 받으면서 회복 훈련을 하고 있다. 현재 통증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슈팅 훈련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0일 레알 베티스와 스페인 프로축구 정규리그 13라운드에서 허벅지를 다쳐 전치 6~8주 진단을 받은 메시는 스페인에서 1단계 치료를 받았고, 지난달 29일 고향인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훈련장에서 2단계 치료를 받고 있다.

그라운드 훈련 이외에 체육관에서 왼쪽 허벅지 근육 강화 훈련도 병행하는 메시는 조만간 다친 부위에 대한 초음파 진단을 받을 예정이다. /정성일기자

손흥민 14R 베스트 11 선정

'손세이셔널' 손흥민(21·레버쿠젠 바이엘)이 2013~2014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14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가 3일 발표한 14라운드 베스트 11을 보면 손흥민은 공격수 부문에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도르트문트)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1일 뉘른베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36분 선제 결승 골에 이어 후반 32분 쐐기골을 꽂아 넣어 레버쿠젠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 외에도 아르연 로번, 단테(이상 바이에른 뮌헨), 제에인 존스, 레로이 손 파르판(이상 샬케04) 등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정상훈기자

프로농구 전적 3일

삼성	27	15	16	11	69
KT	17	15	18	12	62

프로배구 전적 3일

흥국생명	3	2	현대건설
한국전력	3	0	대한항공

"컨디션 80~90%…편안하게 경기"

김연아 '골든 스핀…' 출전 위해 크로아티아 출국

'피겨 여왕' 김연아(23)가 부상에서 복귀해 올림픽 2연패를 향한 본격적인 실전 검증에 나선다.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출전을 위해 크로아티아로 떠나는 김연아는 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이번 대회는 프로그램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라 욕심내기보다는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화려하게 은퇴하겠다고 결심한 김연아는 과도한 연습으로 인한 오른발 부상으로 9월부터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다. 최근 정상 컨디션을 회복한 김연아는 시즌 첫 무대로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를 택하고 올림픽 리허설을 치른다.

김연아가 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출전을 위해 크로아티아로 떠나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작은 대회지만 일본의 안도 미키와 러시아의 떠오르는 선수(엘리자베타 툭타미셰바)도 출전한다"며 결전을 다짐했다.

또 "지금은 80~90% 정도로 (몸 상태가) 올라왔다. 올림픽 때 100%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이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욕심과 부담감이 전혀 없다. 대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연아는 쇼트 프로그램에서 뮤지컬 '리틀 나이트 뮤직'의 삽입곡 '어릿광대를 보내주오', 프리스케이팅에서 탱고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를 처음 공개한다.

김연아가 출전하는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은 6일 밤, 프리스케이팅은 7일 밤 열린다.

/유순호기자 suno@

4000만원짜리 와인

조현호의 와인스토리

홍콩에서 최근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12병들이 와인 1케이스가 47만6000달러에 낙찰됐단다. 병당 3만9000달러. 한화로 4100만원을 넘는 어마어마한 가격이다. 낙찰자는 중국의 한 부호로 알려졌다. 이로써 또 한 번 판매가 기록이 갱신됐다.

주인공 와인은 1978년 빈티지(포도가 수확된 해)의 '로마네 콩티'다.

먼저 1978년이라는 빈티지가 남다르다. 와인의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빈티지다. 냉해에 냉해… 서리 등 이상기후가 닥치면 싹이 얼거나 꽃이 잘 피지 않는다. 여름에 너무 가물거나 비가 많이 와도 악영향을 미친다. 수확기에 서리가 빨리 오면 이 또한 타격이 크다. 이 모든 기후적인 요소들이 포도의 품질을 좌우하게 된다.

1978년은 로마네 콩티로서는 행복한 해다. 포도 농사가 잘됐다. 그래서 1978년산은 빈티지 평가에서 80점대 후반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와인 나이 35세면 웬만하면 상해서 마시지 못하지만 이 와인은 지금이 마시기 딱 좋은 시기라고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몇 년은 더 보관해도 충분히 품격을 버티는 와인이다.

로마네 콩티라는 브랜드는 또 어떤가. 마니아들이 죽기 전에 마셔보고 싶은 와인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데 예외가 없다.

로마네 콩티는 프랑스 부르고뉴의 코트도르(황금의 언덕)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와이너리(도멘 드 라 로마네 콩티, 약칭 DRC) 이름이자 브랜드로서 세계 최고임을 자타가 인정한다. 재배 면적도 작지만 나무당 열리는 포도송이도 확 줄여서 수확량 또한 적다. 1년에 400~500케이스만 생산한다. 대신 가장 비싼 가격으로 보상받는 셈이다.

빈티지가 좋든 좋지 않든 로마네 콩티는 병당 무조건 수백만원을 호가한다. DRC는 이 와인을 출고할 때 1케이스에 단 한 병만 넣고 나머지 11병은 다른 와인을 채워 넣는다. 그래도 사겠다는 예약자가 수년씩 밀려 대기 중이다. 와인 그 자체로서든 투자 수단으로서든 수세기를 이어온 최고의 와인임은 분명하다.

mchr@metroseoul.co.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u.com

몇달째 월급 안나와 걱정 태산 48세 지나면 나쁜 운세 사라져

미남2 남자 66년 10월 21일 음력 오후 4시

Q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몇 달째 월급이 안 나와 대출을 받아 기계벼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한 직장에서 참고 견뎌야 하는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A 운칠기삼(運七氣三)이라 생일 일간기토(日干己土)가 지지의 생활권으로 기지 않아 고단합니다. 일지(日支)에 장성이라 고집의 근기가 있으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십시오. 옳은 일을 정확히 해내고 인정이 있어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데 칼을 쓰는 직업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여직 부친이 살아계신다면 과거 부친이 했던 일을 이어가면 금상첨화입니다. 부친이 도와주는 길흉이 따릅니다. 내년 3월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것이고 범씨를 만은 48세 이후입니다. 육체기 강해에 정신도 강해지는데 2014~2015년에 화(火)극 금(金)되어 치아도 약해지고 빌어나 손목의 골절상을 입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조심하십시오.

식당 매출 줄어 업종변경 고민 이번 주말 되면 손님 늘어날것

미남2 남자 71년 6월 1일 음력 오전 11시

Q 후배 대신 올립니다. 후배가 한식당을 운영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최근 들어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으로 업종을 바꾸고 싶은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A 천을귀인을 쥐고 있는데 진해귀문(辰亥鬼門)이 있어 일정 궤도에 오르면 발전이 멈추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종교가 없다면 칠성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칠성님은 계연을 관장하는 조상님들의 별성입니다. 계연의 청하는 소리를 미나하니 빠뜨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귀문이라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도움을 얻게 돼 복을 지지하게 됩니다. 사주상으로는 풀어지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마음을 기라앉히게 되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운기는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인 10~11월이 지났으니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오는 7일이 지나면서 운세기 살아나니 걱정 마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7			
							4	2
			4		6	3	6	
	4	1		9		6		
	6						1	
		5		1		8	7	
	1	7	6		2			
3	8							
			5			2		

9			8		7			1
		7	1		6	5		
	6			9			2	
7	2						3	5
		3				2		
6	8						7	4
	9			5			1	
		4	9		1	6		
3			6		2			6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슈퍼스도쿠 맥스터 (재플러 미디어 리미티드 저)

신점[神占] 운세 12월 04일 (음 11월 2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종매한 말은 결실 맺는다. 60년생 익숙한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라. 72년생 부진의 잠에서 깨어난다. 84년생 연인의 기념일 잊지 않도록 신경 써라.

소 49년생 아랫사람에게 칭찬 아끼지 마라. 61년생 거동도 약에 쓰려니 없다. 73년생 계획했던 일에 착산이 쌓여지는구나. 85년생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 생긴다.

호랑이 50년생 덮어두고 싶은 일 벌어진다. 62년생 변동 있어도 할 일은 하라. 74년생 직장인은 종착 닫고 목소리도 커진다. 86년생 시류에 오를 일 있으니 신중할 것.

토끼 51년생 급해도 쌍짓든은 꺼내지 마라. 63년생 만법으로 미종 나갈 빛이 온다. 75년생 속중에는 술잔 먹어야 미니 판샐러 배려라. 87년생 최선 다하면 도움 생긴다.

용 52년생 생각지도 못한 곤돈 생겨 즐겁다. 64년생 사람 만으려면 지출 감수하라. 76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게이다. 88년생 동료와 일로 인한 갈등 조심할 것.

뱀 53년생 거래처의 이상한 조짐 파악할 것. 65년생 건강한 일은 무사히 넘어간다. 77년생 동쪽이 행운이 방향이니 창조하라. 89년생 불리할 땐 물러서는 게 좋다.

말 42년생 덕 본 김에 제사 지낸 격. 54년생 꿈찜한 일은 보이곳하라. 66년생 이불 쓰고 만세 불러봤자 소용없다. 78년생 체면이 손상돼도 의사 표현은 솔직히 할 것.

양 43년생 지나 일 간섭하지 마라. 55년생 투자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67년생 의도는 좋으나 변지수 클러 난감. 79년생 약점을 잘 활용하면 의외의 결과 얻는다.

원숭이 44년생 귀가 얇으면 유혹에 넘어간다. 56년생 달콤한 말은 독임을 명심하라. 68년생 오처럼 계획대로 일이 풀려 즐겁다. 80년생 뜻 이루려면 쓴고 받아들일 것.

닭 45년생 현실성 떨어지는 말은 접어라. 57년생 걱정했던 돈 문제 해결된다. 69년생 술기운에 충동행동 주의. 81년생 상사의 제안은 웬만하면 받아들이는 게 좋다.

개 46년생 지손에게 경사가 생긴다. 58년생 문서 일은 가능하면 미뤄라. 70년생 존지 힘으로 숙원을 이루니 가슴이 벅차다. 82년생 상사의 칭찬에 일이 즐겁구나.

돼지 47년생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 59년생 절망을 견뎌낸 사람만이 희망을 노래한다. 71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여유 필요. 83년생 괄목할 만한 성과에 유쾌하다.